

주체미술교육의 빛나는 50년

미술교육출판사·1997

주체미술의 화원을 더욱 활짝 꽃피우리라
영광의 화첩에 새겨가며
숭고하고 아름다운 화폭을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보아주신
영원히 변치않을 충성의 마음안고
온 세상에 소리높이 자랑하는 우리
주체미술교육의 력사를
자랑하노라

주체미술의 대전성기가 펼쳐졌어라
세계가 부러워하는
어버이로, 스승으로 모시였기에
문학예술의 위대한 거장을
50년 세월은 길지 않아도
한 나라 미술력사에

백이더냐 천이더냐
인민이 알고 세계가 아는 화가들
위대하고 비범한 그 손길아래 자라나
주체미술의 대원종장이여
말하라 영광에 찬 대학이여

수령님의 주체미술위업을 빛내가시여라
탁월한 령도로
《미술론》의 대강을 펼쳐주시고
손수 붓을 드시여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이어가시거니
오늘은 그 사랑
안겨주시였던가
얼마나 크나큰 믿음과 은정을
그리도 기뻐하시던 어버이
재능있는 화가 서예가를 만나시면
어버이수령님!
주체미술의 대화원을 가꾸어오신
불면불휴의 로고와 심혈을 기울여
현지지도의 거룩한 자욱을 찍으시며
1954년 8월 5일
미술교육의 만년대강을 펼치시고
1948년 1월 10일
돌이켜보면

이 나라 미술교육의 새 력사여
반세기 년륜을 새겨왔은
개교의 첫 종소리가 울리던 그날부터
천대받던 로동자, 농민의 아들딸들을 부르며
1947년 9월 10일
해방된 강산에 건국의 노래높이 울리던
감회도 깊어라

자랑찬 50년이여
주체미술교육의
영광빛나라



辽大艺术访朝代表团
于1998年4月14日上午
访平壤美术大学。

속표지 그림

조선화 《현실을 보고 그려야 좋은 그림을 그릴수 있소》

김상훈, 리률선, 김재혁, 박진수

1980년 (193×300㎝)





주체미술교육의 빛나는 50년

평양미술대학창립 50돐기념 화첩

1997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평양미술대학 지도 주요일지

1948년 1월 10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평양미술전문학교 교육사업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시고 학교의 사명과 임무를 밝혀주시였으며 앞으로 미술대학으로 개편하기 위한 준비사업을 잘할데 대하여 교시하시였다.

1954년 6월 16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평양미술대학 학생들에게 복구건설에 참가하는것은 창작생활에 필요한 귀중한 생활체험을 쌓는 좋은 일이라고 하시면서 사회주의건설과 혁명투쟁에 관한 그림들을 더 많이 그릴데 대하여서와 조선화를 시대적요구에 맞게 더욱 발전시켜나갈데 대한 강령적인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1954년 8월 5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8.15해방 9돐기념 평양미술대학 전람회장을 찾으시고 전시된 조선화, 유화, 수채화, 조각, 소묘 작품들을 높이 평가하시고 앞으로 학생들이 높은 사상의식과 정열을 가지고 꾸준히 노력하며 조선화를 선명하고 아름답게 형상할데 대하여서와 평양미술대학이 우리 나라 미술발전에 적극 기여할데 대하여 교시하시였다.

1954년 8월 18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미술교육사업이 당의 의도에 맞게 진행되고있는데 대하여 높이 평가하시고 앞으로 교원, 학생들 속에서 사대주의와 교조주의, 민족허무주의적 경향을 없애기 위한 사상투쟁을 강하게 벌리며 조선화교육을 강화하고 미술기초과목교수를 잘해나갈데 대하여서와 과정안과 교수요강을 잘 만들데 대하여 교시하시였다.

1962년 10월 21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만경대에서 현지실습중에 있는 평양미술대학 학생들을 만나시고 현실을 보고 그려야 좋은 그림을 그릴수 있다고 하시면서 현지실습을 잘할데 대하여 교시하시였다.

1964년 2월 9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국가미술전람회 정형을 보고받으시고 산업미술교육을 강화할데 대하여 교시하시였다.

1966년 10월 16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녀성들을 화가로 많이 키우며 국가에서 미술가들을 체계적으로 키우는 사업에 깊은 주의를 돌릴데 대하여 교시하시였다.

1980년 8월 8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평양미술대학 학생들을 동원하여 국제친선전람관과 인민대학습당 단청을 할데 대하여 교시하시였다.

1982년 1월 12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평양미술대학 전문부 1학년 김하경학생이 쓰는 붓글씨를 친히 보아주시고 높이 평가하시면서 특수한 재능을 가진 학생들에게 수재교육을 할데 대하여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평양미술대학 지도 주요일지

1972년 6월 13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평양미술대학의 조선화교육사업을 개선강화할데 대하여 말씀하시였다.

1977년 8월 18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평양미술대학을 1급대학으로 승격시켜주시고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일부 학부, 학과를 새로 내오도록 하시였으며 금강산과 묘향산을 비롯한 전국의 명승지들에서 현지실습을 진행하며 학생들의 실기교수와 현지실습에 쓰이는 종이와 안료, 붓을 무상으로 공급하도록 배려하여주시였다.

1978년 6월 5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평양미술대학 산업미술교육에 힘을 넣어 산업미술부문의 우수한 도안가들을 많이 키워낼데 대하여 말씀하시였다.

1978년 6월 10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평양미술대학 교육사업을 강화하여 능력있는 미술전문가들을 더 많이 키워낼데 대하여 말씀하시였다.

1982년 1월 12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평양미술대학 전문부 1학년 김하경학생의 붓글쓰는 정형을 보시면서 높이 평가하시고 특수한 재능을 가진 학생들에게 수재교육을 할데 대하여 말씀하시였다.

1983년 5월 20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평양미술대학에서 전공실기교육을 강화하는 방향에서 교육강령을 개작하고 산업미술학부와 공예학부의 교육을 실기교육으로 전환하며 교수경험이 많고 오랜 교원들을 고문격으로 두고 사업할데 대하여 배려하여주시였다.

1985년 10월 4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평양미술대학에서 위대한 수령님의 필체를 연구할데 대하여 말씀하시였다.

1987년 6월 22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평양미술대학 교육실태를 료해하시고 인체그리기를 비롯하여 미술의 기초를 닦는 교육을 잘할데 대하여 말씀하시였다.

1991년 11월 13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평양미술대학의 능력있는 교원들이 위대한 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혁명활동을 형상한 미술작품을 창작하도록 하는 높은 정치적신임과 배려를 돌려주시였다.

1993년 1월 14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우리 나라에서도 유화를 발전시켜야 한다고 하시면서 평양미술대학에서 유화를 발전시키기 위한 연구사업을 잘할데 대하여 말씀하시였다.

1996년 2월 18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평양미술대학에서 창작한 미술작품들을 보시면서 유화《1994년 7월의 만수대언덕》을 비롯한 조선화, 유화, 선전화 작품들을 잘 형상한데 대하여 높이 평가하시고 대학에서 학생들에 대한 교육교양사업을 잘하여 훌륭한 미술가들을 많이 키워낼데 대하여 말씀하시였다.



조선화 나어린 수재를 찾아주시고 강훈영, 김광식 1982년 (178×250㎝)



유화　평양미술대학 전람회를 현지지도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１９５４. ８. ５）
리종효, 리일호, 정문철　１９９７년　（１６９×２２８㎝）



조선화 평양미술대학에서 창작한 미술작품들을 보아주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1996. 2. 18)
김규학, 박광림 1997년 (168×244㎝)

화 첩 《주체미술교육의 빛나는 50년》을 내면서

은혜로운 태양의 광휘로운 빛발아래 우리 나라 미술교육의 자랑찬 력사가 시작된 때로부터 어느덧 반세기가 흘러갔다.

주체미술교육의 영광에 찬 50년, 이 빛나는 로정에는 위대한 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미술인재육성에 관한 사상과 방침의 승리의 력사가 뜨겁게 아로새겨져있으며 수령님과 전사, 령도자와 인민, 스승과 제자간에 맺어진 혼연일체, 충효일심의 숭고한 사적이 담겨져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해방후 새 조국 건설의 중하를 한몸에 지니신 그 바쁘신 가운데서도 민족문화건설에서 미술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을 깊이 통찰하시고 1947년 9월 10일 평양미술대학의 전신인 평양미술전문학교를 창립하여주시고 1948년 1월 10일에는 미술인재육성사업에서 지침으로 삼아야 할 강령적인 과업을 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1954년 8월 5일 전후 우리 나라에서 처음으로 열린 평양미술대학 미술전람회장에 몸소 나오시여 교원, 학생들이 창작한 미숙한 미술작품들을 오랜 시간에 걸쳐 하나하나 주의깊게 보아주시면서 분에 넘치게도 높은 평가를 주시였으며 8월 18일에는 다시금 미술교육이 나아갈 앞길을 휘황히 밝혀주시였다.

우리 나라에서 주체사실주의미술교육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세심한 보살피심과 정력적인 지도에 의하여 보다 높은 단계에 올라서게 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어버이수령님의 주체적교육사상이 밝힌 길을 따라 미술교육을 철저하게 우리 식대로 해나가도록 현명하게 이끌어주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미술대학은 유능한 미술전문가들을 키워내는 나라의 믿음직한 미술인재양성기지입니다. 미술대학에서는 주체미술발전의 요구에 맞게 교수교양사업을 잘하여 주체의 세계관이 확고히 서고 예술적기량이 높은 능력있는 미술전문가들을 더 많이 길러내야 하겠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독창적인 사상과 천재적인 예지로 미술교육의 내용과 방법을 끊임없이 개선해나가도록 현명하게 이끄심으로써 위대한 수령님의 주체적인 미술교육사상을 빛나게 실현하시는 불멸의 공적을 쌓으시였다.

이처럼 위대한 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밝히신 주체미술교육의 빛나는 대강이 있음으로 하여 평양미술대학 교원, 연구사들은 직업적혁명가의 본분을 다하여올수 있었으며 불후의 고전적로작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 《교육사업을 더욱 발전시킬데 대하여》, 《미술론》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 혁명과 건설에 쓸모있는 미술인재를 키워냄으로써 자기의 임무를 훌륭히 수행하여왔다.

이 나날에 대학은 영예의 《김일성훈장》을 수여받았으며 오늘에 와서 7개의 학부와 30여개의 강좌, 6개의 연구실을 가진 주체미술연구소와 3년제 박사원, 2년제 연구원, 미술관, 실습공장 등 완비된 교육 체계와 조건을 그쯘히 갖추고 교수, 박사, 부교수, 학사, 인민예술가, 공훈예술가들로 교육진영을 튼튼히 형성하여 능력있는 미술전문가들을 키워내는 종합적인 미술인재양성기지로 전변되였다.

화첩 《주체미술교육의 빛나는 50년》은 위대한 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50년의 년륜을 새긴 평양미술대학의 교육성과를 보여주는데 목적을 두고 지난 기간 교원들과 학생들이 창작한 미술작품들과 교재 및 습작품들 그리고 당의 부름을 높이 받들고 교원, 학생들이 국가적인 대기념비미술창조사업에 참가한 정형을 집약적으로 펼쳐보이고있다.

화첩은 창립당시에 령으로부터 시작되였던 미술교육사업이 50돐을 맞이한 오늘에 와서는 비약적인 발전을 이룩함으로써 미술교육의 풍만한 전성기가 펼쳐진 자랑찬 현실의 일단을 보여주게 될것이다.

편 집 부

차 례

조 선 화

> 조선화를 기본으로 하여 미술을 발전시켜 조선화를 다른 미술형식에 확고히 앞세우는것은 우리 당의 시종일관한 방침이다.
>
> 김정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미술대학을 세워주신 첫 시기에 다른 모든 부문에서와 마찬가지로 미술분야에서도 사대주의와 교조주의, 민족허무주의, 복고주의를 비롯한 낡은 사상을 없애지 않고서는 우리의 미술을 민족적인 토대우에서 건전하게 발전시켜나갈수 없다고 하시면서 미술대학에서 조선화를 바탕으로 하여 미술교육을 해나갈데 대한 강령적인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특히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1954년 8월 5일 미술대학 미술전람회를 보아주시면서 조선화분야에서 수묵담채화를 없애고 채색화를 기본으로 발전시키며 새로 생긴 조선화학과를 결정적으로 늘이도록 세심한 지도를 주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주체미술건설에서 조선화가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에 맞게 1976년 조선화학과를 조선화학부로 확장하고 학부안에 세화학과, 몰골학과를 새로 내오며 조선화의 다양한 전통적기법들을 더욱 발전시키도록 하시였으며 그후 화조학과, 서예학과, 그림수복학과를 더 내오도록 하여주시는 은정깊은 조치를 취하여주시였다.

이처럼 위대한 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세심한 지도와 자애로운 사랑 속에서 조선화학부는 우리 인민의 사상감정과 정서에 맞는 조선화교육사업을 줄기차게 진행하여옴으로써 1800여명의 조선화전문가들을 키워내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인민예술가 2명, 부교수 10명, 학사 24명, 공훈예술가 6명을 배출한 권위있는 미술교육집단으로 자라났다.

또한 조선화학부는 졸업생 창작가들속에서 위대한 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존귀하신 영상을 형상한 불멸의 기념비적작품들과 우리 인민의 벅찬 투쟁과 생활을 담은 시대적인 명화들을 수많이 창작하여 위대한 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께 기쁨과 만족을 드리고 당의 높은 평가를 받은 《김일성상》계관인 2명, 로력영웅 2명, 인민예술가 16명, 공훈예술가 40여명 그리고 국제국내미술전람회의 금메달수상자들만도 무려 90여명이나 배출하는 자랑과 긍지를 가지고있다.



조선화 회령의 백살구 최성룡, 량동근
1995년 (134×318㎝)



조선화
조선의 긍지
박진수, 김영호, 량문봉
1 9 8 0년
(2 1 1 × 3 6 9 ㎝)



조선화
어머님과 함께 아버님을 면회하시면서 일제를 때려부실 결의를 다지시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
김대승
1967년 (110×158㎝)



유화
조선의 어머니
서기운
1997년 (118×182㎝)



유화
백두의 정기를 안으시고
김상훈
1982년 (167×232㎝)



조선화
항일혈전의 불비속에서
박진수
1982년 (240×270㎝)

조선화

사랑의 품

서광익, 박창룡 1997년 (185×280㎝)

조선화

불멸의 자욱을 찾으시여

김규학

1982년 (220×180㎝)





조선화
만경대의 눈보라
홍정식, 김삼곤
1997년 (160×245㎝)



조선화
파도사나운 섬초소를 찾으신 우리의 최고사령관동지
김기철, 정철
1997년 (172×272㎝)

조선화
전전선을 주름잡으시며
박대연, 김종혁, 박창룡
１９９６년　（１７０×３４０㎝）



유화
사랑의 무기
권　혁
１９９７년
（９９×９０㎝）





조선화
신념의 노래
최광현
1992년
(155×185㎝)

조선화
《조국은 병사들을 잊지 않으리》중에서
안변청년발전소 군인건설자들을 찾으신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
조선화학부 집체작
1996년 (160×410㎝)



조선화
《조국은 병사들을 잊지 않으리》중에서
위대한 수령님의 명령 관철에서 한생을 빛내리
조선화학부 집체작
1996년 (160×380㎝)



조선화

《조국은 병사들을 잊지 않으리》중에서

일심의 군민언제

조선화학부 집체작

1996년 (160×380㎝)





조선화
《조국은 병사들을 잊지 않으리》중에서
죽음을 각오한 사람을 당할자 이 세상에 없다
조선화학부 집체작
1996년 (160×410㎝)



조선화

《조국은 병사들을 잊지 않으리》중에서

장군님믿음에 충성으로 보답하리

조선화학부　집체작

１９９６년　（１６０×３８０㎝）



조선화
《조국은 병사들을 잊지 않으리》중에서
높이 들자 붉은기
조선화학부 집체작
1996년 (160×380㎝)



조선화

《조국은 병사들을 잊지 않으리》중에서

장군님 계시여 우리는 이겼다

조선화학부 집체작

1996년 (180×380㎝)

김삼곤, 전영삼, 서기운, 박창룡, 박관영, 정현일, 서광익, 김기철, 리광영, 리병준, 김규학, 정 철, 홍정식, 한성철, 김영식, 박광림, 최광현, 리명철, 리계섭, 배영걸, 허영일, 곽영훈, 림진혁, 황철진, 김원택, 박대연

조선화 《사랑의 약크림》을 잘 그렸습니다. 23살난 학생이 창작하였다는데 형상을 잘하였습니다.

김 정 일

조선화
사랑의 약크림
리계섭
1995년 (150×230㎝)



조선화
불멸의 꽃 김정일화
박병두
1988년 (60×147㎝)

조선화

보통강의 토성랑을 찾으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

김대승, 김장한, 최태경

1975년 (167×260㎝)



조선화

청년공산주의자 한영애

강훈영

1988년 (100×185㎝)



조선화

피는 피로, 무장에는 무장으로

김규학, 박광림

1996년 (190×290㎝)



조선화
항일혈전의 나날에
김삼곤, 정현일
1990년 (220×280㎝)



조선화
소왕청사람들
박창룡
1988년 (100×180㎝)



조선화
장군님의 품을 찾아
김규학
1980년 (130×95㎝)



조선화
돌아오지 못한 동지
김삼곤
1987년 (170×140㎝)



조선화
백두산
전영삼
1984년 (39×74㎝)



조선화
항일의 녀전사 안순화동지
김철수
1997년 (122×183㎝)



조선화

홍두산전투를 지휘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리률선, 지달승, 리종환

1968년 (193×327㎝)



조선화
장군님의 품을 찾아서
정현일
1987년 (125×210㎝)

조선화 장군님품으로 신성섭
1978년 (145×215㎝)



조선화 전 과 최순민 1987년 (100×150㎝)





조선화 한홉의 미시가루 리길남 1967년 (101. 4×134. 5㎝)



조선화
북만원정의 길에 오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지달승
1967년 （154×240㎝）

조선화
재봉대원들
주귀화
1961년
(113×239㎝)



조선화
병기창의 밤
리광영
1992년
(180×130㎝)



조선화
청봉숙영지
리광영
1991년
(35×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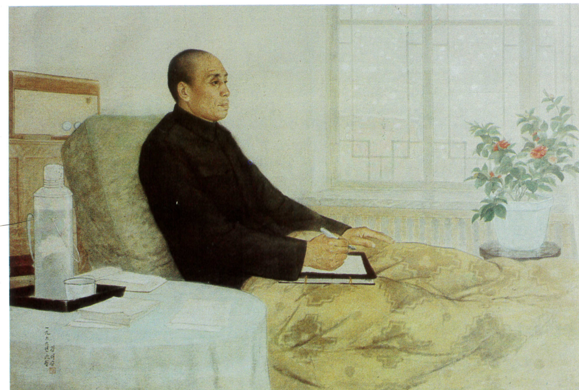

조선화 사향가 김영호 1985년 (140×350㎝)



조선화
푸른 산
홍정식
1996년 (87×118㎝)



조선화
장군님의 부르심을 받고
서삼혁
1996년
(169×260㎝)



조선화
혁명투사 박달동지
김대승
1966년
(103×148㎝)



조선화
해방된 새 조국 건설의 휘황한 앞길을 밝혀주시는 위대한 수령님
리률선
１９９２년　（１９９×３００㎝）



조선화
고향집사립문
김규학, 김기철
1995년 (173×233㎝)



조선화
10월의 아침
김삼곤, 정현일
1993년 (196×300㎝)



조선화

10월의 환호

김규학, 김기철

1993년 (217×340㎝)



조선화
빛나는 우리 조국
리길남
1988년 (140×250㎝)



조선화
장미
안창국
1996년
(45×60㎝)



조선화
해방의 그날
김효석
1985년 (155×230㎝)

조선화
한 머슴군에게 집을 주시고
문패까지 써주시는 어버이수령님
리영기, 한창규, 렴병옥
1975년 (200×318㎝)





조선화
첫 수확의 기쁨을 함께 나누시는 어버이수령님
리길남
1977년 (169×230㎝)



조선화
김책동지에 대한 크나큰 사랑
리길남, 박관영　1982년　(200×272㎝)

조선화
진펄을 헤치고
리률선
1987년
(156×300㎝)



조선화 최고사령부보도 송재철 1983년 (105×180㎝)



조선화 전선으로 가는 길 김두성 1977년 (100×240㎝)

조선화 한강도하전투 리수현, 리근하 1965년 (126×370㎝)

조선화 고성인민들의 전선원호 정종여 1961년 (145×523㎝)



조선화

병사들의 생활을 보살펴주시는 최고사령관 김일성동지

리률선

1977년 (185×313㎝)

《남강마을의 녀성들》은 또한 얼마나 생동하고 전투적인 그림입니까? 이 그림에 나오는 주인공들은 조국해방전쟁의 승리를 위하여 후방에서 남자들 못지않게 희생을 두려워하지 않고 영웅적으로 싸운 조선녀성들의 슬기롭고 용감한 모습 그대로입니다. 이 그림에서는 녀성들이 끌고가는 소까지도 용기를 내는듯합니다.

김 일 성



조선화 남강마을의 녀성들 김의관 1966년 (121×264㎝)



조선화 모내기전선
김주현 1966년 (111×164㎝)



조선화
진격의 나루터 김룡권
1970년 (113×218㎝)



조선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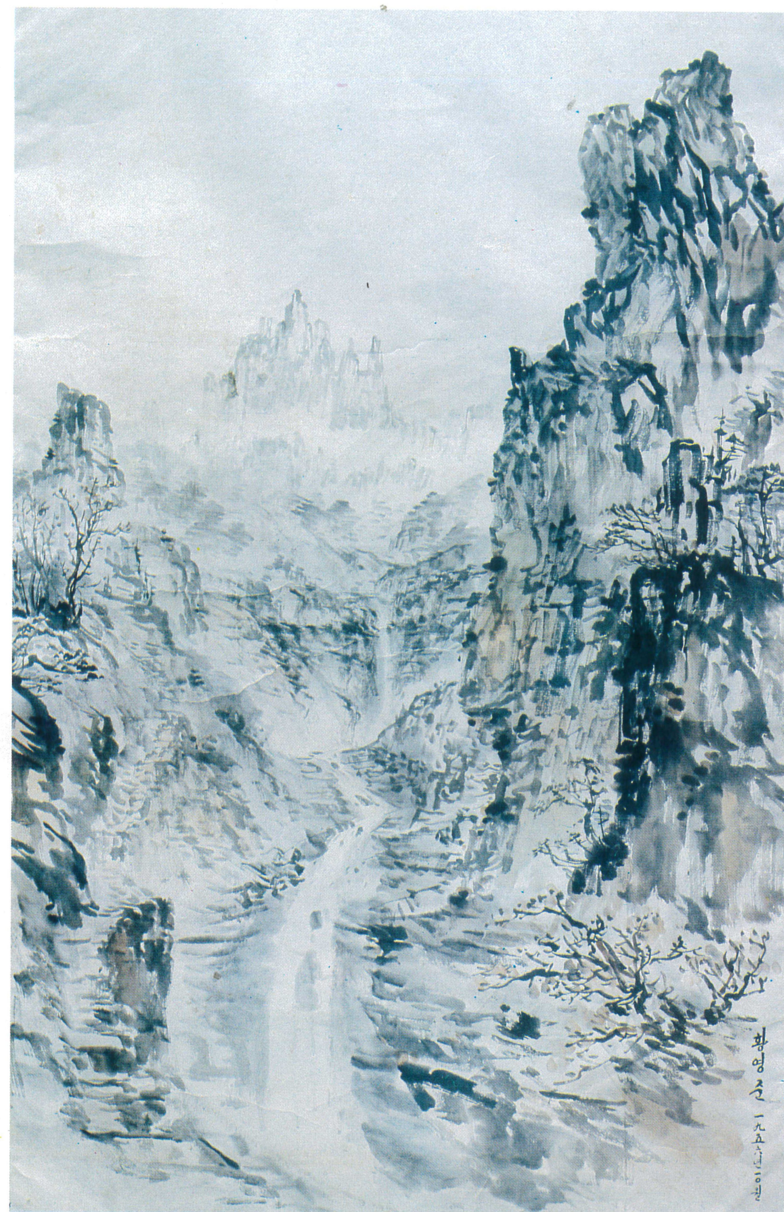
전투영웅대회 참가자들과 함께 계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김기철

1 9 9 7년

(1 5 8×2 6 5㎝)

조선화
5월의 농촌
정종여
1956년
(195×120㎝)



조선화 일청대
황영준 1956년 (96×58.5㎝)

조선화 《금강산》은 얼마전에 본 조선화 《금강산》보다 낫습니다. 그때 본 그림은 조잡하고 선명하지 못하였습니다. 조선화는 선명하고 아름다와야 합니다. 앞으로 조선화를 이번에 내놓은 작품형식으로 발전시켜나가는것이 좋습니다. 조선화가 우리 인민의 감정에 맞습니다. 조선화를 더욱 발전시켜야 하겠습니다.

김 일 성



조선화 금강산 정종여 1954년 (123×218㎝)



조선화 목련 리석호 1957년 (71×170㎝)



조선화 춤 김용준
1957년 (170×89㎝)

조선화 간석지개간 리률선 1961년 (177.5×358㎝)



조선화 대성산 광법사의 아침 김광식
1994년 (45×66㎝)



조선화
휴식시간
리종환
1961년
(96.5×159㎝)



조선화 비단섬의 달밤 최성룡
1988년 (147×63㎝)



조선화 늪가에서 한경보
1991년 (69×48㎝)

조선화
금강산
김주현
1975년
(172×60㎝)



조선화
강철의 전사들
최계근
1966년
(143×233㎝)



조선화
동성동계곡
한경보　1996년　(116×76㎝)



조선화
향산천의 아침
김영식
1997년　(73×115㎝)



조선화 새해를 맞는 용해공들
박대연 1979년 (115×195㎝)



조선화
쉴참
한성철
1990년
(184×152㎝)



조선화
장미
천창원
1992년
(68×27㎝)



조선화
탄부의 모습
박관영
1985년
(180×155㎝)



조선화 기술혁신선구자들 정철 1987년 (134×197㎝)



조선화 탄전의 주인들 정희진 1984년 (110×205㎝)



조선화
몸소 지하막장을 찾으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박진수
1978년
(160×263㎝)



조선화

로동자들의 건강을 념려하시여

서광익, 김영식

1 9 9 2년 (1 6 8×2 9 2㎝)



조선화
청춘의 위훈
문영광
1997년
(141×212㎝)



조선화
약속
김명수
1985년
(175×140㎝)



조선화
탐구의 나날
정철
1990년
(127×207㎝)



조선화
몸소 창광거리 건설현장을 찾으시여
리률선, 김규학, 최광휘
1980년 (204×346㎝)



조선화

조국의 지도를 넓혀나가시는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

정룡석

1 9 8 2년 (1 4 0×1 9 6㎝)

조선화 《향도의 해발아래 꽃피는 평양》과 《페허우에 일떠서는 평양》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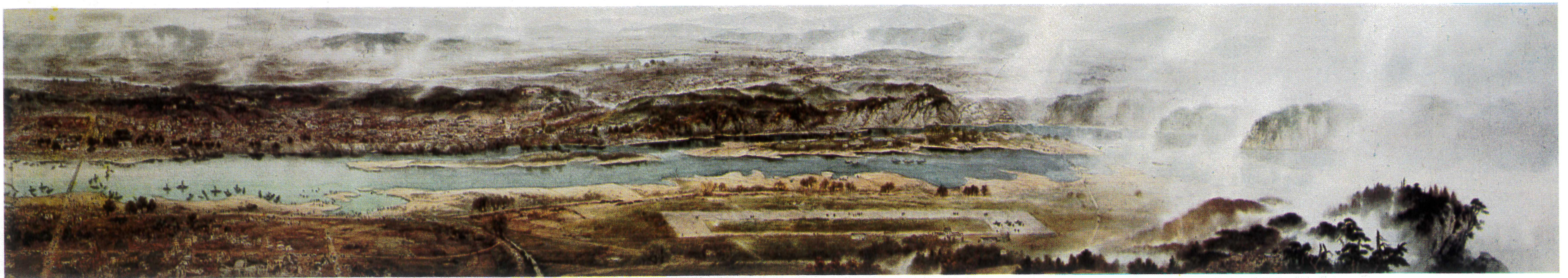




조선화 향도의 해발아래 꽃피는 평양 1993년 (89×800㎝)

14명이 그렸는데 잘 그렸습니다. 완전한 전경화입니다.

김 정 일





조선화 페허우에 일떠서는 평양 1993년 (89×800㎝)

최성룡, 안창국, 김형락, 김광식, 오린모, 김원택, 박창룡, 최광휘, 김정원, 정현일, 리명철, 리병준, 최경화, 한성철



조선화
《나갈수만 있다면 공해까지라도 나갑시다!》
한창규
1982년
(188×400㎝)



조선화

남새풍년을 마련하여오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

김연성

1977년

(176×293㎝)



조선화

만풍년든 강냉이탈곡장을 찾으신 어버이수령님

렴병옥, 리석산

1 9 7 7년

(1 8 0×2 7 7㎝)



조선화
만풍년든 연백벌
박관영, 최광현,
리광영, 박창룡,
정현일, 홍정식,
김상길
１９９５년
（１５３×４１１㎝）



조선화 주체농법의 요구대로 한경보 １９７９년 （１００×１５０㎝）



조선화
청춘의 푸른 꿈
김건혁
１９９３년 （１２０×２２０㎝）



조선화
양어장에서
리길남
１９６１년
(１７７×８８㎝)



조선화
현지방목
김원택
１９７８년
(１４７×１０５㎝)



조선화 풍성한 우리 집 박현철 １９９７년 (１３０×１６６㎝)



조선화

한 사양공의 작은 성과를 함께 기뻐하시는 어버이수령님

리률선

1978년

(103×259㎝)

조선화　꽃피는 맹산　리길남, 김규학, 리병준, 김기철, 최윤철, 김영학, 박광림　1 9 9 5 년　(1 7 1×5 0 4㎝)



조선화　봄이 왔다　최광휘　1 9 7 9 년　(8 5×1 3 7㎝)



조선화　봄을 앞당기는 사람들　김시택　1 9 7 8 년　(1 4 4×2 2 2㎝)

조선화
비내리는 새벽에도
리광영
1997년
(165×135㎝)



조선화
주체농법 만세
김종혁
1989년
(142×106㎝)



조선화
민들레
한천순
1985년
(108×83㎝)



조선화 꽃봉오리 김영식 1995년 (60×83㎝)



조선화
겨울
리병준
1995년
(96×63㎝)



조선화
해바라기
최광휘
1979년
(175×65㎝)



조선화
바쁘신 걸음을 멈추시고
김삼곤
1975년
(147×203㎝)



유화

예술영화 《조선의 별》 촬영현장을 찾아주신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

김상훈, 류정봉, 최제남, 김장한, 리종효

１９８０년

（１９５×３０６㎝）



조선화

예술원정을 떠나는 문예전사들을 바래우시는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

박진수, 김영호, 서광익

1980년

(187×349㎝)

조선화
초소에 찾아오신 어버이수령님
박창섭
1968년
(228×167㎝)



조선화 백운산의 가을 신성철 1996년 (104×64㎝)



조선화 전사의 신념 림철호 1997년 (130×166㎝)



조선화 전승기념비앞에서 서삼혁 1995년 (63×90㎝)



조선화
우등사수들
최광현
1995년
(134×158㎝)



조선화
백발백중의 담력을 키워주시며
정철, 홍정식
１９９６년
（１９８×３３４㎝）



조선화

만경대혁명학원을 찾으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정현일

１９９７년

（１４３×２４１㎝）



조선화
어린 머슴의 생일
신성섭
1976년
(160×200㎝)



조선화
내 눈을 사주세요
김연성
1976년
(147×106㎝)



조선화
갑오농민전쟁
김규학
1985년
(175×305㎝)



조선화
기어이 만나리
김주현
1988년
(100×236㎝)

조선화
우리의 소원은 통일
백선기
1989년
(130×165㎝)



조선화 교수가 찾은 길 리봉섭 1988년 (180×200㎝)





조선화
려운형렬사를 추모하여 화환을 보내주시는 위대한 수령님
김규학, 김삼곤
1992년 (180×380㎝)



조선화 통일의 꽃 강훈영, 리병준 1990년 (100×167㎝)



조선화 분단의 장벽을 넘은 첫 사절 김삼곤 1990년 (169×318㎝)



조선화 참대 김종성 1992년 (165×90㎝)



조선화
7 0만재일동포들의 위대한 어버이
김삼곤, 김주현, 박진수
1 9 8 2년
(2 1 4×3 2 5㎝)



조선화 금수산기념궁전 김혜숙 1997년 (73×205㎝)



조선화 소나무와 학 김정원 1995년 (100×180㎝)



조선화
모란
최광휘
1987년
(112×60㎝)



조선화
조선혁명의 전략을 구상하시는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
김영호
１９７８년
(１９６×３４７㎝)



조선화

세계인민들의 축원속에 계시는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

김영호

1982년

(198×304㎝)



조선화
꺼질줄 모르는 당중앙의 불빛
강훈영　１９８０년　（１２４×１９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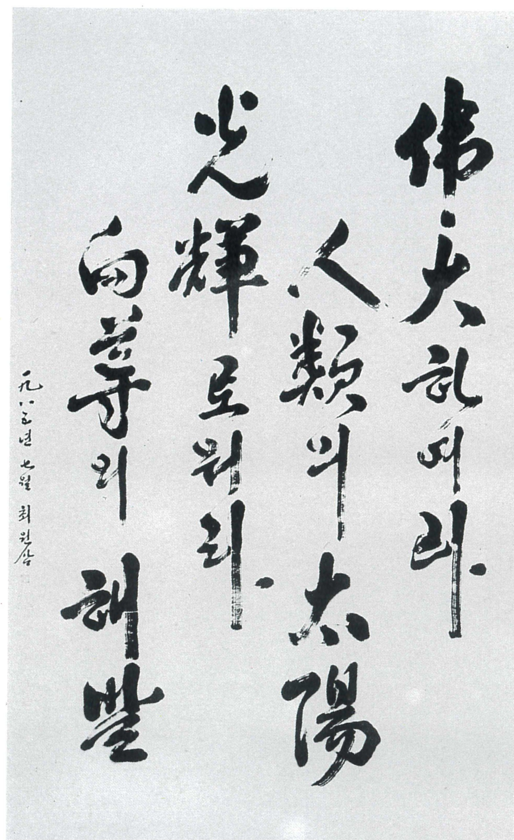
유화 1997년 4월 25일의 아침 김상훈 1997년 (120×26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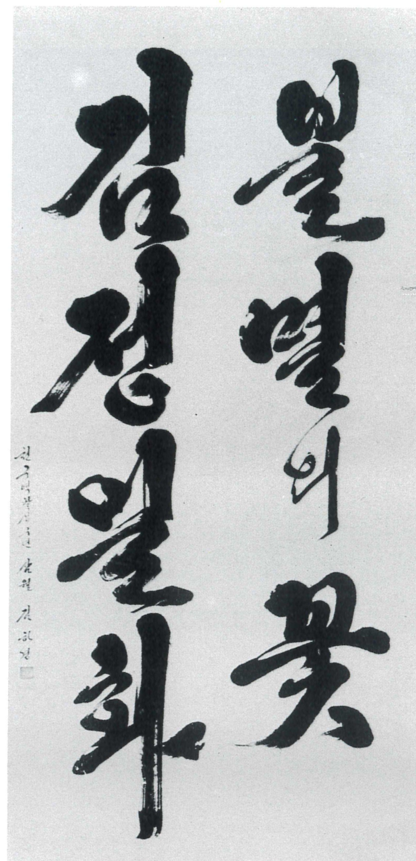
조선화
묘향산 상원동의
불멸의 글발
김정원
1990년 (179×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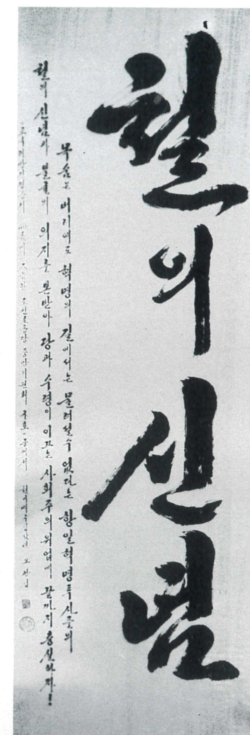
조선화 전사의 도리 리계섭 1997년 (100×1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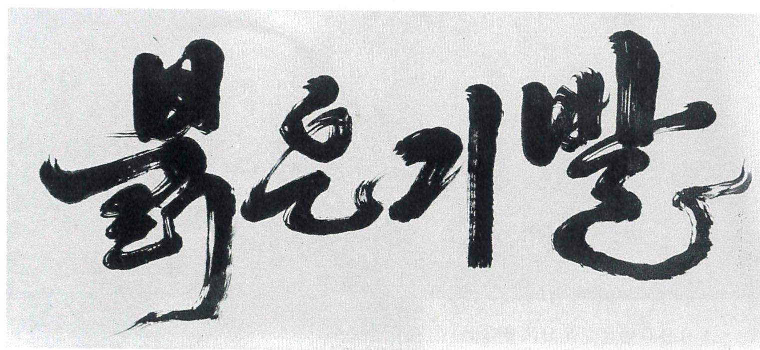
서예 최원삼 1985년



서예
김하경
1989년



서예 오광섭 1993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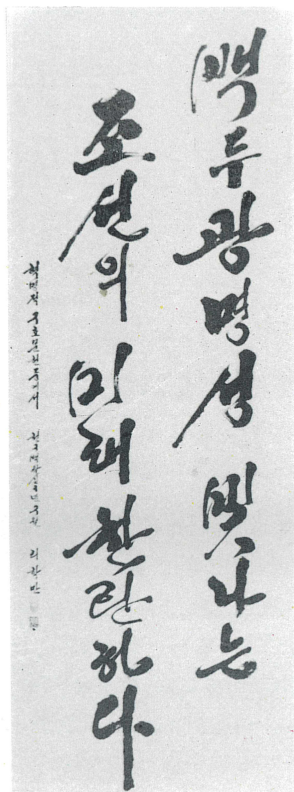
서예 오광섭 1995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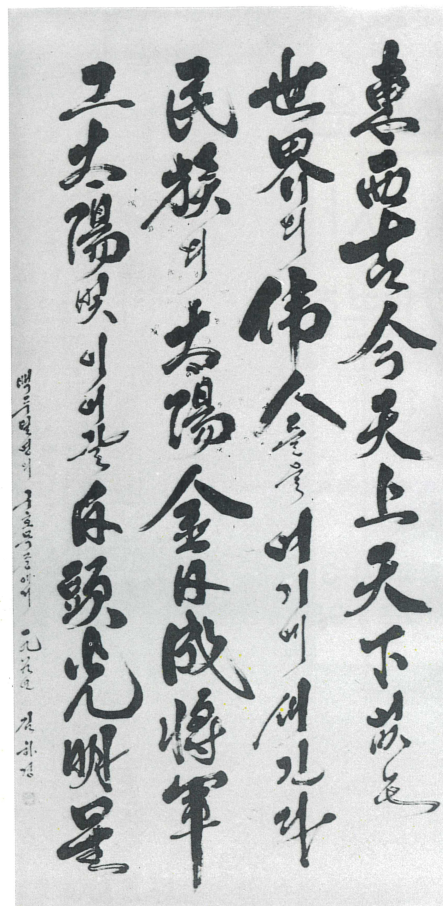
서예 최원삼 1987년



서예 렴태검 1989년



서예 리학만 1986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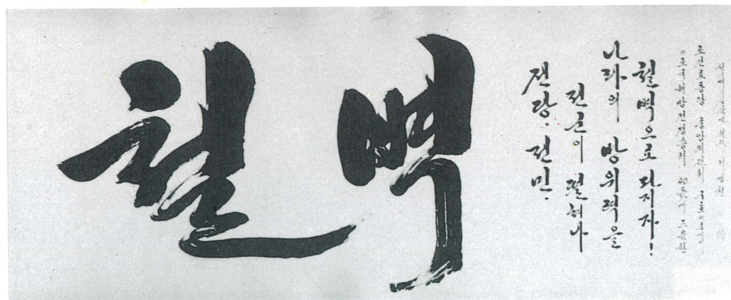
서예 김하경 1989년



서예 오은숙 1989년



서예 김문향 1986년



서예 리명철 1993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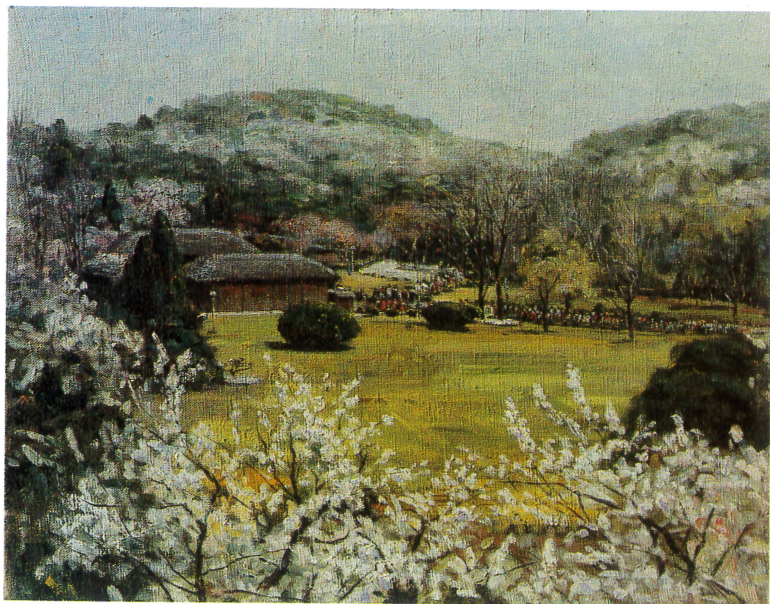


서예 최원삼 1991년

회 화

> 회화는 형상 원리와 방법으로 보나, 현실반영의 폭과 깊이로 보나, 사람들에게 주는 정서적감화력으로 보나 조형예술의 기본형태라고 할수 있다.
>
> 김 정 일

회화학부는 1947년 9월 평양미술대학 창립당시 3대학과의 하나였던 유화학과로부터 발전하였다. 회화학부의 사업은 1954년 8월 5일 위대한 수령님의 현지지도 이후 새롭게 발전하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전후 처음으로 열린 평양미술대학 미술작품전람회장에 몸소 나오시여 유화로 형상한 미술작품들도 보아주시면서 주제도 좋고 형상수준도 높은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였으며 유화를 우리 인민의 사상감정과 정서에 맞게 발전시켜나갈데 대한 강령적인 과업을 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가르치심을 높이 받들고 회화학부는 유화교육에서 새로운 전환을 가져왔으며 1959년에 영화 및 무대 미술학과를, 1960년에 벽화학과를, 1993년에 분장미술학과를 새로 내오고 전일적인 학부로 강화발전되였다.



유화 4월의 만경대 김형철 1997년 (52×67㎝)

지난 50년간 회화학부는 당의 의도에 맞게 미술교육사업을 심도있게 진행하여 우리 나라 회화발전에서 중추적인 역활을 하는 천여명의 회화가들을 키워냈다. 이들속에서는 사상예술성이 높은 명작들을 창작하여 위대한 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께 기쁨을 드리고 인민들의 사랑을 받는 재능있는 유화가, 벽화가, 무대미술가들이 수많이 나왔으며 《김일성상》계관인 6명, 로력영웅 1명, 인민예술가 11명, 공훈예술가 29명이 배출되였다. 이러한 성과를 거두게 된것은 전적으로 위대한 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주체적인 미술건설사상을 제시하시고 유화, 벽화, 영화 및 무대 미술, 분장미술 발전을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령도하여오신 결과이다.

학부는 현재 교수 2명, 박사 1명, 인민예술가 2명, 부교수 8명, 학사 8명, 공훈예술가 4명을 가진 강력한 학술집단으로 꾸려져 재능있는 유화가, 벽화가, 무대미술가들을 키워내기 위한 교수교양사업과 창작 및 과학연구 사업에서 새로운 성과를 위하여 더욱 분발하고있다.



유화 《1994년 7월의 만수대언덕》을 특출하게 잘 형상하였습니다. 이 작품은 유화가 아니고서는 해결할수 없을것입니다. 작품의 깊이가 있습니다. 이런 깊이가 있는 작품은 유화로 창작하는것이 좋습니다. 확실히 유화가 깊이가 있습니다. 사진으로도 남길수 없는 력사적인 화폭을 유화에 잘 담았습니다.

김 정 일

유화
1994년 7월의 만수대언덕
김상훈
1995년
(110×78㎝)



유화 농촌혁명화를 위하여 농민들속에 들어가시여 정치사업을 벌리시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
강훈영 1967년 (130×158㎝)



유화

쟈신즈목재소 로동자들앞에서 연설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강훈영, 박창준　1967년　(177×258㎝)



유화　《민생단》보따리를 불태우시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
리영기, 박창준, 강훈영
1970년
(127×161㎝)



유화 5호물동 리영찬
1961년 (99×70.5㎝)



유화
장길부녀사
강익하
1962년
(97×73㎝)



유화 장군님을 그리며 서기운 1990년 (122×90㎝)



유화

무산지구전투승리를 구상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강훈영

１９６９년

（１６０×１９０㎝）



유화

첫 녀성중대의 전투성과를 치하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리종효, 류정수

１９９５년

（２０６×３０３㎝）



유화
조국광복의 위대한 구상을 무르익히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박경희, 박진수
１９６５년
（３０３×２４８㎝）



유화
삼지연못가에 이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김연성
１９６５년
（８５×１４３㎝）



유화
몸소 시범락하를 하시며
리종효
1996년
(180×240㎝)



유화
조국에로 진군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김석룡, 김형철, 강익하, 리철희
１９７０년
（１９５×３３４㎝)



유화

조국에 개선하시여 조부모님을 만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김상현, 한남선, 김장한, 김삼곤　１９７０년　（１９０×２５９㎝）



유화

조국에 개선하시여 첫 연설을 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문학수

1 9 5 2년

(1 2 6×1 9 3㎝)

유화 《장군님의 전사 류경수동지》를 그린 창작가도 위대한 수령님께 끝없이 충직하였던 류경수동지를 잘 형상하였습니다.

김 정 일



유화 장군님의 전사 류경수동지 서기운 1991년 (133×99㎝)



유화 《상승사단》의 종말 리영찬, 렴병옥 1989년 (152×200㎝)



유화 전차병과 처녀 권경수 1996년 (122×134㎝)



유화
조옥희
문학수
1952년
(126×193㎝)

유화
추수대
리철희
1966년
(128×188㎝)





유화 락동강의 영웅들 김응남 1997년 (117×223㎝)



유화

부모없는 아이들을 한품에 안아주시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

류정봉 1978년 (156×200㎝)

유화 《고지의 이야기》도 아주 잘 그렸습니다. 인민군군인한테서 적을 쏴눕히던 통쾌한 이야기를 듣고있는 로인이 《그러면 그렇지!》하고 마치 무릎을 치는것 같습니다. 로인이 대통에 담배를 담는 모습도 그럴듯하게 잘 그렸습니다.

김 일 성



유화 고지의 이야기 한상익 1954년 (78×100㎝)



유화
해방전이야기
김석룡
1965년
(147×615㎝)



유화
비행기사냥군
리인수
1997년
(104×86㎝)

유화 《탈곡장》은 내용도 좋고 그림도 잘 그렸습니다. 인민군군인들이 농민들의 탈곡을 도와주는 내용을 진실하게 형상하였습니다.

김 일 성



유화 탈곡장 장영환 1954년 (80×1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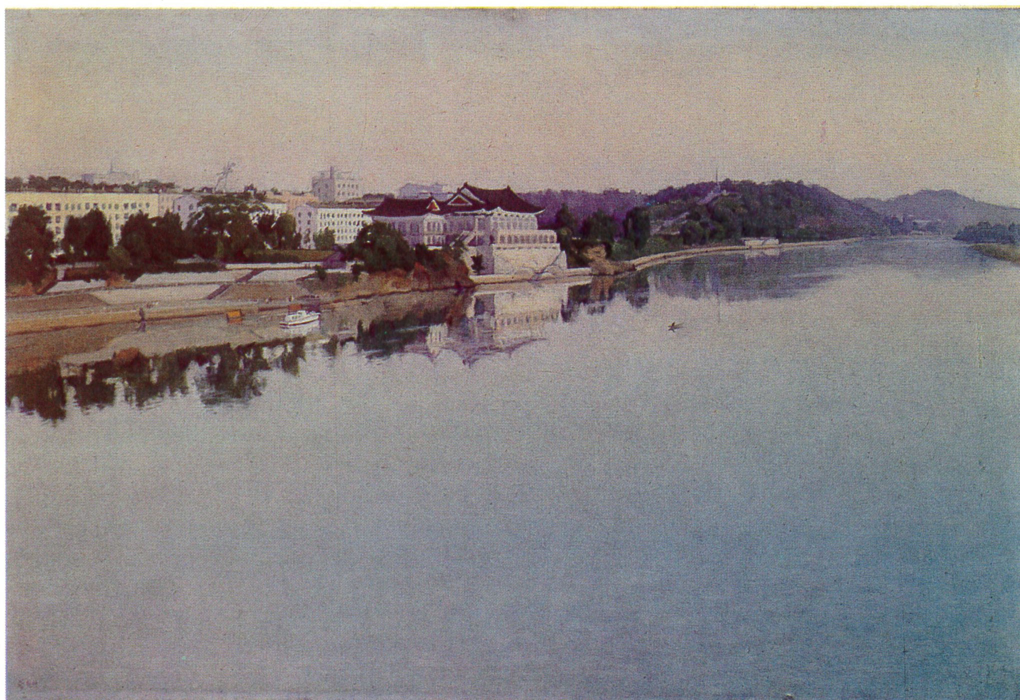
유화
승리의 열병식
조혜성
1997년
(105×8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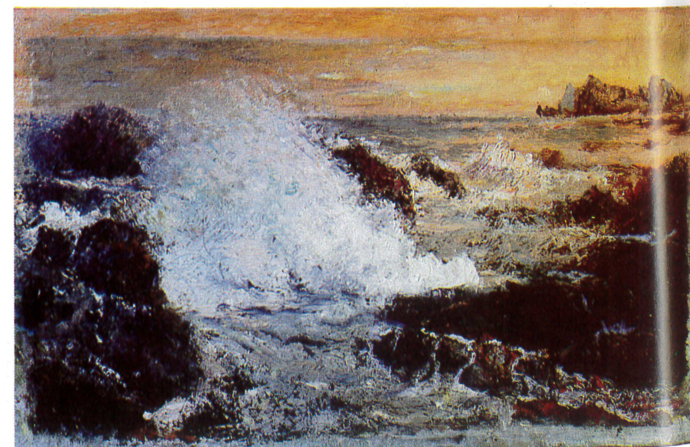
유화
아버지의 후회
림병삼
1955년
(106×146㎝)

유화 《전선의 이야기》도 잘 그린 그림입니다. 특히 이 그림에서는 우리 농민들의 생활풍습을 잘 반영하였습니다. 방안에 종자도 매달려있고 가마니와 화로도 놓여있으니 농민가정이라는것이 인차 알립니다. 우리는 우리 인민들의 풍습을 잘 알고 그대로 형상하여야 합니다.

김 일 성


유화 전선의 이야기 양재혁 1954년 (78×100㎝)


유화
대동강의 아침
황헌영
1961년
(60×90㎝)


유화 파도 한남선 1992년 (35×45㎝)

유화 《새 교실》은 하나의 자그마한 생활이 그림에 반영되여있지만 그 내용이 전후복구건설의 휘황한 전망을 보여주므로 의의가 큽니다. 바로 그렇기때문에 이 그림은 예술적가치도 더 있습니다. 구상을 잘하였습니다. 이 그림은 사진보도자료를 그대로 그린 그림보다 가치가 더 있습니다. 이런 그림은 구상하기 어려운데 미술가들이 생활의 진실을 파악하고있기때문에 잘 그릴수 있었습니다.

김 일 성



유화 **새 교실** 홍호렬 1954년 (66×87.5㎝)



유화
백마산 풍경
박창준
1957년
(56×79㎝)



유화
소나무
한남선
1991년
(145×95㎝)



유화
묘향산
김주경
１９５５년
（７２×１００㎝）



유화
닭
최제남
１９５９년
（１００×７５㎝）

유화 이른봄 김장한 １９６５년 （１２７×８１㎝）



유화
금강산계곡
리종원
1966년
(63×9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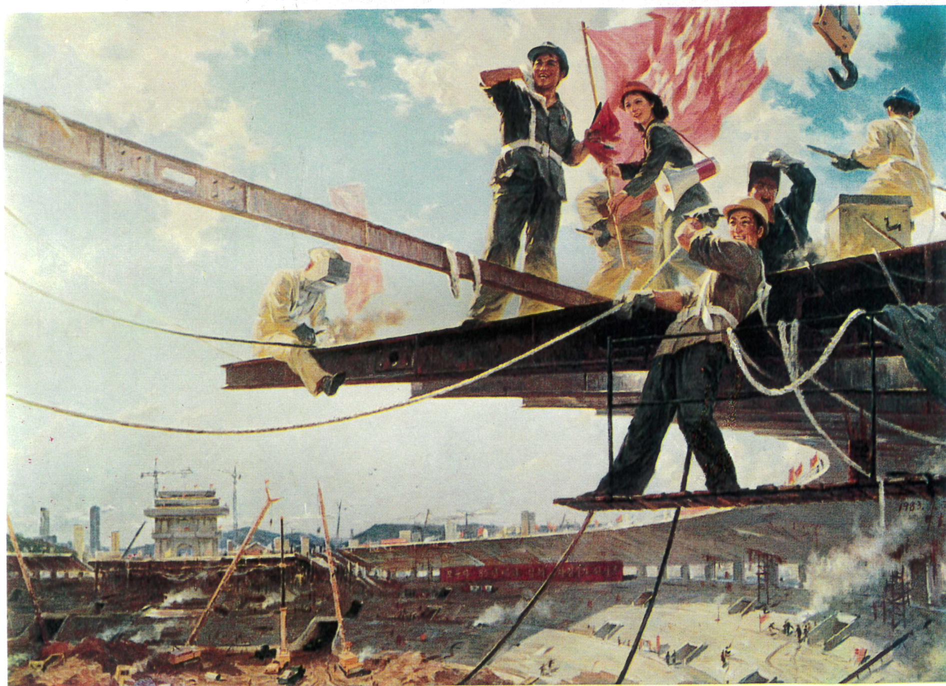
유화 금강산팔담의 달밤 류정봉 1995년 (142×110㎝)



유화　조사공들속에 계시는 어버이수령님　리한조, 최원수　1968년　(179×226㎝)



유화
기동선전대
림건호
１９７９년
(８９×１２５㎝)



유화 **김일성**경기장 건설장 박효성 １９９３년 (１３２×１９２㎝)



유화
파도
정룡수
１９９５년
(７２×１０７㎝)



유화
전천군상업관리소 소장 정춘실을 만나주시는 위대한 수령님
최원수, 리영호
１９９２년　（１７２×２３５㎝）

유화 《예술인전신》을 세화적기법으로 섬세하게 잘 그렸습니다.

김 정 일



유화
정물
림건호
1995년
(82×69㎝)



유화
쉴참
심철웅
1995년
(99×118㎝)



유화
예술인전신
강훈영
1995년
(120×94㎝)

유화 《장군님의 호위전사 오백룡동지》는 혁명선배들을 존대할데 대한 당의 사상에 맞게 종자를 잡았는데 형상을 잘하였습니다.

김 정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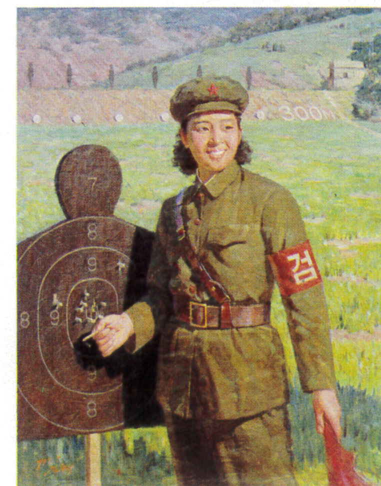
유화 장군님의 호위전사 오백룡동지
서기운
1995년 (115×138㎝)



유화 해안경비대 김정남 1966년 (130×97㎝)



유화
푸른 하늘
장현철
1997년 (83×95㎝)



유화 명중의 기쁨
김철성 1997년 (111×86㎝)



유화 원한의 땅 김종윤 1966년 (142×100㎝)



유화 구국선동 김정남 1966년 (90×129㎝)



유화
고역
홍철웅
1992년
(77×138㎝)



유화 우리는 주체의 밝은 래일에 산다 량성일 1989년 (100×165㎝)



유화 피를 뿌린 밀사 최원수, 강익하 1985년 (160×298㎝)



유화 이 길을 막지 못한다 장광성 1995년 (96×135㎝)



유화 범 최정욱 1997년 (185×165㎝)



유화 제13차 평양축전의 밤 류정봉, 강익하 1989년 (180×250㎝)



유화 사자 최정욱 1997년 (185×165㎝)



벽화 전대협은 싸운다 손진철 1990년



벽화 항쟁 조 춘 1979년



벽화 강선의 노을 정 초 198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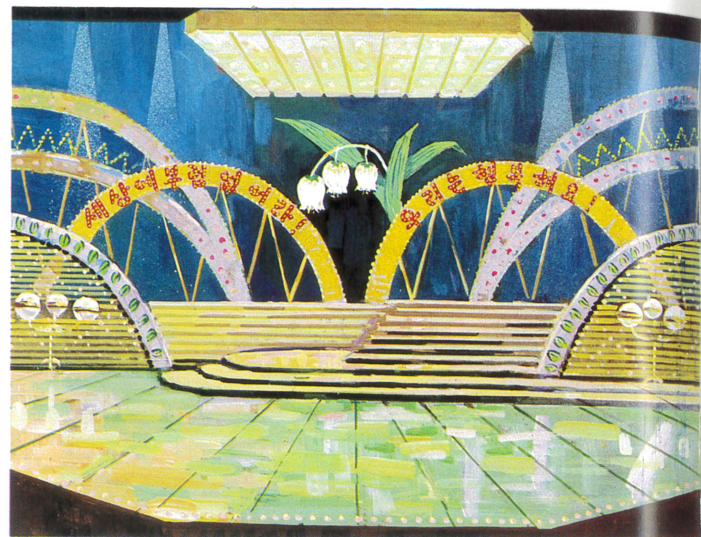
벽화 주체국방체육의 승리 김일수 1984년



벽화 어린 탐구자 박청미 1978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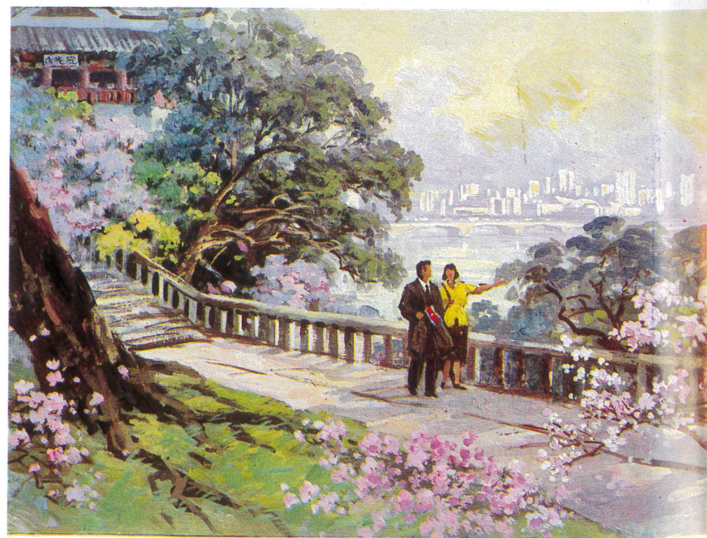
벽화 락원 문학철 1984년



텔레비죤미술 학생소년들의 무대 정선일 1990년



벽화 군사놀이 계광원 1984년



텔레비죤미술 텔레비죤소설 《후대의 길》중에서
김영범 1995년



무대미술
연극 《조선의 어머니》중에서
강 호
1959년



무대미술
연극 《동지들》중에서
강 호
1959년



영화미술
혁명영화 《조선의 별》중에서 김덕신 1989년



무대미술
음악무용서사시 《두만강반에서의 한해 여름》중에서 차승례 1982년



영화미술
예술영화 《해빛 만리》중에서 정성학 1967년



무대미술
민속무용조곡 《평양성사람들》중에서 한 영 1997년

출 판 화

우리는 출판미술을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더욱 발전시켜 그 위력을 끊임없이 높여나가야 한다.

김 정 일

출판화학부는 미술대학창립당시 단일강좌로 있으면서 삽화와 판화, 선전화 교육을 하여오다가 당의 방침에 따라 １９８６년부터 출판화강좌와 선전화강좌, 아동미술강좌로 구성된 학부로 확대발전되였다.

지난 ５０년동안 출판화학부는 당의 예술교육방침을 높이 받들고 교육력량과 교육조건을 튼튼히 꾸리고 출판미술교육을 심화발전시킴으로써 위력한 직관선전선동수단인 주체적인 출판미술발전에 크게 기여하고있는 출판화전문가 １２００여명을 졸업시켰다.

해방후 새 조국 건설시기부터 준엄한 조국해방전쟁시기, 간고하였던 전후복구건설시기와 사회주의건설시기 출판화학부를 졸업한 출판화가들은 위대한 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존귀하신 영상을 형상한 선전화, 판화, 삽화, 아동미술 등 우수한 작품들을 수많이 창작하여 주체혁명위업수행을 위한 투쟁에로 우리 인민들을 불러일으키는데 적극 이바지하였다.

특히 최근 １０년간 학부는 발전하는 현실의 요구에 맞게 출판미술교육을 더욱 심화하면서 《４월의 봄 친선예술축전》, 제１２차, 제１３차 세계청년학생축전 선전화와 현시기 당정책관철에로 우리 인민들을 고무추동하는 선전화 및 판화 작품들과 집단체조배경대미술작품을 훌륭하게 창작하여 위대한 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께 기쁨을 드리고 높은 치하의 교시와 말씀을 수십차례나 받는 영광과 행복을 지니였다.

현재 출판화학부를 졸업한 화가들가운데는 《김일성상》계관인 ２명, 로력영웅 ２명, 인민예술가 ５명, 공훈예술가 ３０여명과 국제국내미술전람회들에서 금메달을 비롯한 수상자들이 ６０여명이나 되며 그들은 우리 나라 출판미술발전에 크게 기여하고있다.



선전화
자력갱생은 조선의 정신! 김경학 １９９６년 （７４×５２㎝）

꽛슈화
어머님으로부터 애국주의교양을 받으시는 어린시절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
김철강, 진순희
1970년
(31×45㎝)



판화
소설 《압록강가에서》 삽화중에서
함창연
1984년 (8×11㎝)



수채화
민족주의자들의 그릇된 견해를 폭로비판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정룡석, 함창연
1970년 (102×164㎝)



괏슈화
대원들과 설맞이모임을 같이 즐기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최송죽, 리석산
1968년
(127×197㎝)



판화 후방밀영에서 박래천
1984년 (66×44㎝)

金一星
金日成
아 그대는 우리의 한별 조선의 태양

위대한 수령님을 태양으로 받들어 모신 청년공산주의자들의 숭고한 삶을 따라배우자!

선전화 위대한 수령님을 태양으로 받들어모신 청년공산주의자들의 숭고한 삶을 따라배우자! 김인봉, 리석남
1996년
(120×192㎝)



판화
백마
엄광수
1996년
(57×85㎝)



판화
무장을 위하여
박영호
1984년
(45×68㎝)



꽛슈화 정일봉　김상훈, 김철　1990년 (184×360㎝)



연필화　천고의 백두밀림　한영보
1994년　(90×130㎝)



판화　장군님의 품을 찾아서　김옥선
1983년　(41×60㎝)



판화　만경봉의 샘물터　김철강
1982년　(74×52㎝)



삽화
그림책　《세 아동에 대한 이야기》중에서
백학훈　1960년



수채화
우리 당 마크에 붓을 그려넣으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정룡석
1992년
(118×189㎝)



수채화　전과보고　김연성　1965년　(70×89㎝)



판화　수중다리　함창연, 정룡석　1971년　(75×102㎝)



광슈화　늙은 승냥이　함창연　1966년　(70×40㎝)



꽛슈화
원수님의 품
김상훈, 박래천
1 9 8 0년
(1 5 0×2 2 7㎝)

수채화 《우물가에서》를 잘 그렸습니다. 이런 내용을 담은 노래도 잘 지었는데 그림도 잘 그렸습니다.

김 일 성



수채화 우물가에서 김용찬 1954년 (48×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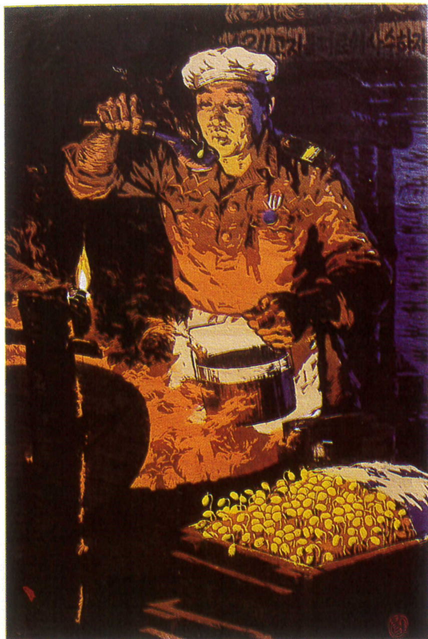
판화 전사들 리석산 1963년 (50×61㎝)



수채화 보람 최재식
1979년 (91×66㎝)



판화 승리한 고지에로 박현주
1993년 (90×50㎝)



판화 사랑의 콩나물 김영남
1992년 (40×60㎝)



판화 고성처녀 엄광수 1993년
(90×48㎝)



콘테화 내리막길 서기운 1989년 (86×169㎝)



선전화 미제는 력사의 교훈을 잊지 말고
경거망동하지 말라! 조남철 1994년
(100×140㎝)



판화 해안포병들 변효찬 1984년
(62×36㎝)



수채화 《발갈이전선의 즐거운 휴식》도 잘 그렸습니다. 뜨락또르운전수가 휴식시간에 농민들에게 당정책을 해설하여주는 모습을 잘 형상하였습니다. 로동계급이 농민들속에서 선전사업을 하는것을 형상하니 얼마나 좋습니까. 사람들모두가 몸에 위장한것으로 형상하니 전쟁시기 농민들의 투쟁모습이 한눈에 안겨옵니다.

김 일 성

수채화 발갈이전선의 즐거운 휴식
오락삼 1954년 (50×72㎝)

수채화 《휴가를 받고》는 오늘의 현실을 그대로 잘 반영한 작품입니다. 휴가받은 인민군군인이 고향마을에 돌아와 마을사람들과 반갑게 만나는 장면은 오늘 우리 나라의 도처에서 찾아볼수 있습니다. 인민군군인들은 고향을 늘 생각하고있습니다. 군인들에게 자주 고향소식을 전해주어야 합니다.

김 일 성



수채화
휴가를 받고
김대승
1954년 (40×50㎝)



수채화

락원기계공장 주물직장 당세포회의를 지도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김연성

1969년

(135×2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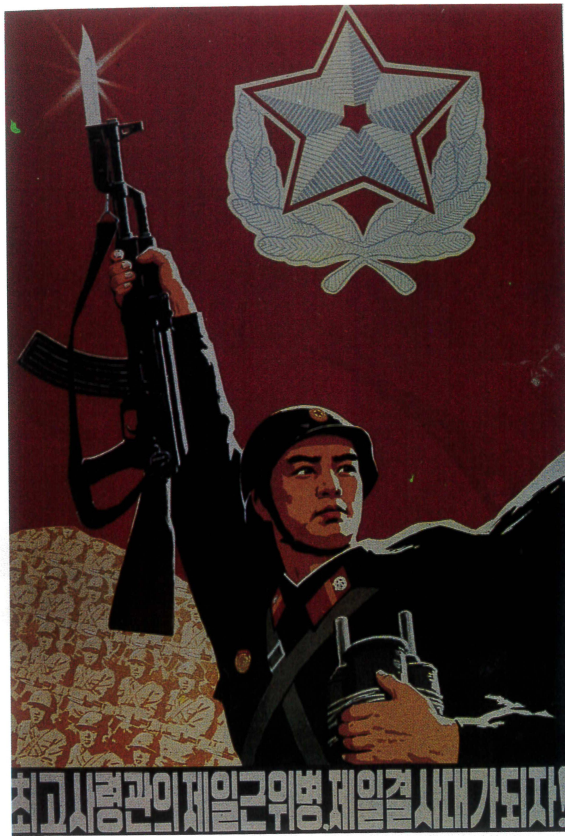
광슈화
벽동군 학생들속에 계시는 위대한 수령님
김상훈, 김철
1992년 (170×258㎝)



수채화
우등사수
정룡석
1965년
(71×40.5㎝)



판화
군항의 밤
김영남
1992년
(34×60㎝)



선전화
최고사령관의 제일근위병, 제일결사대가 되자!
박래천, 최재식
1996년
(73×51㎝)



선전화
인민군대의 총창우에 사회주의운명과 부강한 조국이 있다!
박왕일
1997년
(101×152㎝)



선전화
모든 지역 모든 전선에서 미제의 손발을 얽어매자! 박래천 1968년 (74×52㎝)

선전화 《당의 크나큰 믿음에 충성과 효성으로 보답하자》를 잘 그렸습니다. 선전화가 힘이 있어보이는것이 좋습니다.

김 정 일



선전화
당의 크나큰 믿음에
충성과 효성으로 보답하자!
김은하
1995년 (116×180㎝)





판화
군인건설자
리석남
1990년
(57×37㎝)

판화 기적소리 들려온다 황철호 1995년 (53×73㎝)



판화 탄부의 기쁨 리국철 1992년 (50×66㎝)



연필화 항만기중기운전공 렴병옥 1985년 (70×100㎝)



판화
풍어의 달밤
박영주
1965년
(55×82㎝)



연필화
노을비낀 항구
한경보
1993년
(82×1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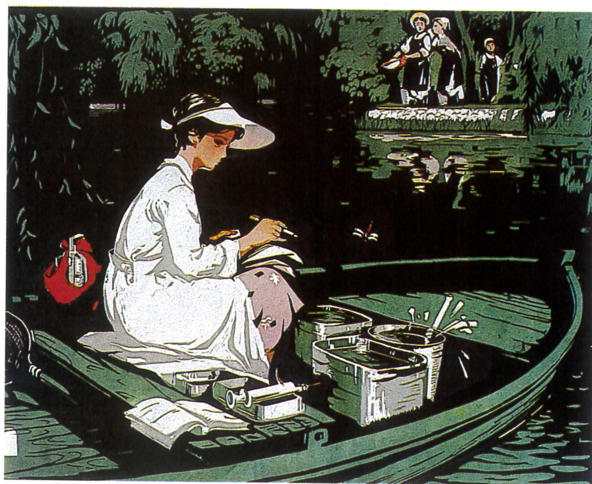
판화　청년분조장　박성길　1 9 9 2년　(4 8×6 2㎝)



선전화　조선로동당창건 5 0돐을 만풍년으로 맞이하자 !
리정복　1 9 9 5년　(7 3×5 1㎝)

판화
선물송아지
김철강
1 9 7 5년
(1 2 1×6 9㎝)





판화
양어기사
김휘웅
1 9 8 8년
(4 5×5 7㎝)



판화
봄제비
한경식
1 9 8 7년
(6 3×3 5㎝)

판화
나들이
배운성
1 9 5 5년
(2 7.5×1 2.8㎝)





수채화 먼길가는 할머니를 념려하시여 차를 멈추신 위대한 수령님 한재영, 정룡석 1970년 (88×1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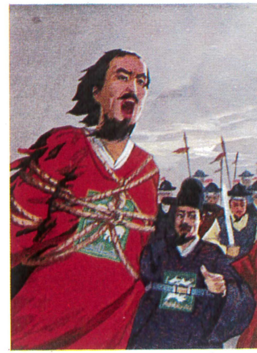
선전화
아버지대원수님은 영원한 우리의 해님
황정균, 임명길, 김규창
１９９５년
（６４×１２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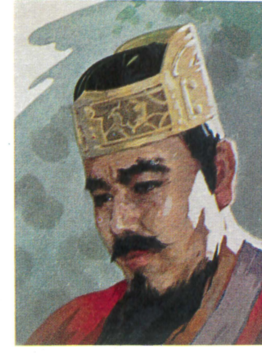
아버지 대원수님은 영원한 우리의 해님



수채화　일광욕　림춘범　１９９４년　（１１７×８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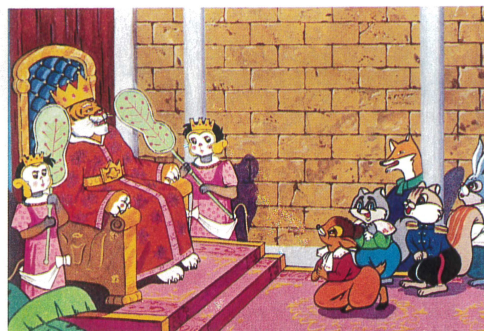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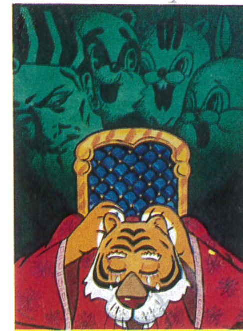





아동화　임금과 충신　주정철　1991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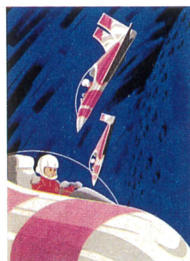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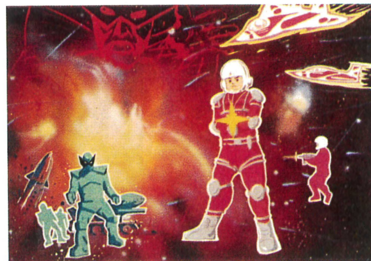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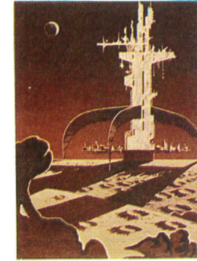


아동화　산중대왕의 죽음　최경숙　1994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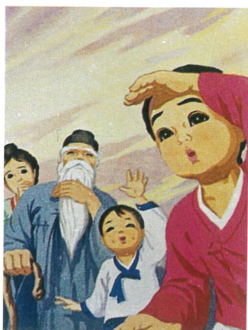
아동화　우주이야기　렴태성　1991년













아동화 진주늪의 처녀시인 남정애 1995년

















아동화 솔이가 받은 나이 임명길 1992년



선전화 위대한 수령님의 조국통일유훈을 기어이 실현하자!
김인봉, 황철호 1997년 (147×105㎝)

팟슈화 영원한 우리의 어버이 엄광수 1997년 (126×163㎝)



수채화 마지막교실 김연성 1966년 (53×76㎝)



삽화
소설 대하는 흐른다(표지) 백학훈 1965년



콘테화 삐라를 뿌리는 남조선소녀 박래천 1975년 (72×189㎝)



수채화 남녘학우들의 념원 황정균 1988년 (71×111㎝)



선전화
따르자 받들자 주체의 향도성 **김정일**동지
김인봉, 최재식
１９９３년
（１０７×１５３㎝）



판화
통일의 봄을 그리며
김휘웅
１９８９년　（３７×３２㎝）

제 12차 세계청년학생축전 선전화를 다 잘 그렸습니다. 특히 어린이가 축전마크를 향하여 꽃보라를 날리는 선전화를 아주 잘 그렸습니다. 어린이를 곱게 그렸습니다. 이제는 미술가들의 수준이 높아졌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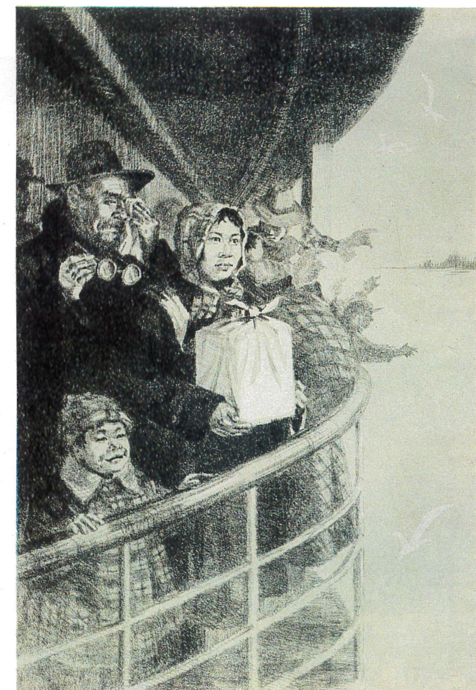
김 정 일



선전화 축하해요! 오영남
1985년 (51×73㎝)



연필화
백두의 몸부림
한경보
1994년
(72×107㎝)



판화
어머니의 소원
최태경
1959년
(48×32㎝)



선전화　반제련대성, 평화와 친선
김명건　１９８５년　(７４×５２㎝)



선전화　４월의 봄 친선예술축전
김철강　１９８９년　(７４×５６㎝)



선전화
환영
김철강
１９８９년
(７４×５２㎝)



선전화　핵무기가 없는 새 세계를!
박상일　１９８７년　(７３×５１㎝)



선전화
제１０차 ４월의 봄 친선예술축전
리동철
１９９２년
(７４×５６㎝)

조 각

조각은 돌, 금속, 나무, 석고 같은 재료를 가지고 묘사대상을 립체적모습으로 돋구어내는 조형 예술형식이다. 립체적조형을 떼여놓고 조각예술에 대하여 말할수 없다.

김 정 일

대학창립과 함께 조각학과로 발족한 조각학부는 1953년 9월에 제1기졸업생을 배출한 때로부터 오늘까지 44기에 걸쳐 500여명의 조각가들을 양성하여 만수대창작사를 비롯한 국가의 중요미술창작기관들에서 활동하게 함으로써 그들이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위업 수행에 적극 이바지하는 대기념비조각건립과 나라의 전반적인 조각미술작품창작에서 주동적인 역할을 놀고있는 크나큰 자랑을 안고있다.

조각학부졸업생들가운데는 영예의 《김일성상》계관인 2명, 최고인민회의대의원 1명, 로력영웅 5명, 인민예술가 8명, 공훈예술가 19명, 부교수 8명 등 높은 국가수훈과 명예칭호소유자들이 있으며 그 대렬은 조각가들을 키워내는 교육사업이 심화됨에 따라 늘어나게 될것이다.

조각학부는 지난 기간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의 기치를 높이 들고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힘있게 벌려 1993년 9월에 3대혁명붉은기학부의 영예를 지니였다.



조각 소년빨찌산 김윤호 1967년



조각 창덕학교시절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송영백, 김재경, 김휘조 1967년



조각 미래 리후갑 1988년



조각 중대의 누나 리창식 1963년

조각
항일빨찌산영웅들
조규봉, 김교필, 지청룡



조각
고지의 전사
송영백
1966년

조각
격멸
윤경룡
1966년





조각
간호원 조순옥
김원준
1969년

> 조각 《승리》를 잘 창작하였습니다. 인민군전사가 승리한 고지우에 공화국기발을 꽂고 목청껏 만세를 부르는 장면을 잘 형상하였습니다. 전쟁시기 우리 인민군군인들이 용감하게 잘 싸웠습니다. 조각 《승리》와 같은 조각작품들을 많이 창작하여야 하겠습니다.
>
> **김 일 성**



조각 천리길 진성흡 1967년



조각 사관장의 마음 홍경환 1979년



조각 월미도의 방위자들 리승전 1983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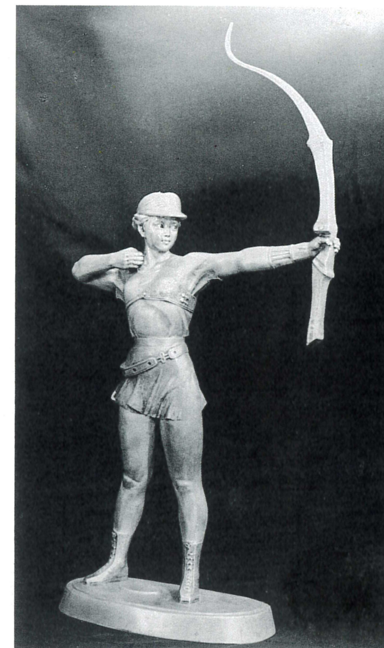
조각 승리 조규봉 1954년



조각 경비대원 안룡현 1967년



조각
승리의 열병식
김유철
1996년



조각 활쏘기선수 박대혁 1996년



조각
한치의 땅도
조동순
1993년



조각 병사는 벼이삭 설레이는 소리를 듣네
림광철 1996년



조각
천리마작업반장
송영백
1959년



조각
용해공들
김수영
1971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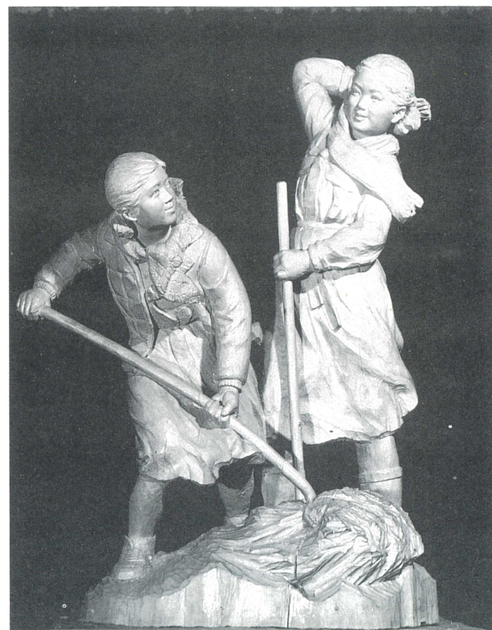
조각 포경수 최동준 1958년



조각 붉은 선동원 김재경 1963년



조각 청춘과원 박광조 1978년



조각 봄을 앞당겨 리정운 1979년



조각 농산기수 김종남 1985년



조각
설날아침
김동호
1978년

조각
비둘기춤
김동호, 김종수, 김재경, 고성철
1995년





조각 꼬마병사 장병수 1966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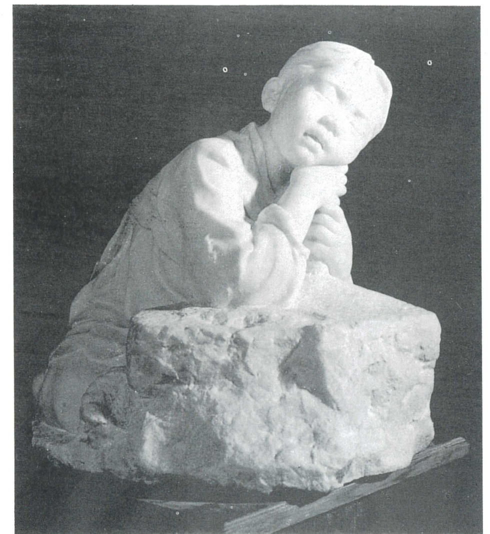
조각 녀성소고대원 한영길 1996년



조각
군사놀이
윤영철
1979년



조각
어머니
조규봉
1959년



조각 매돌 김필수 1967년



조각 종살이 전명수 1996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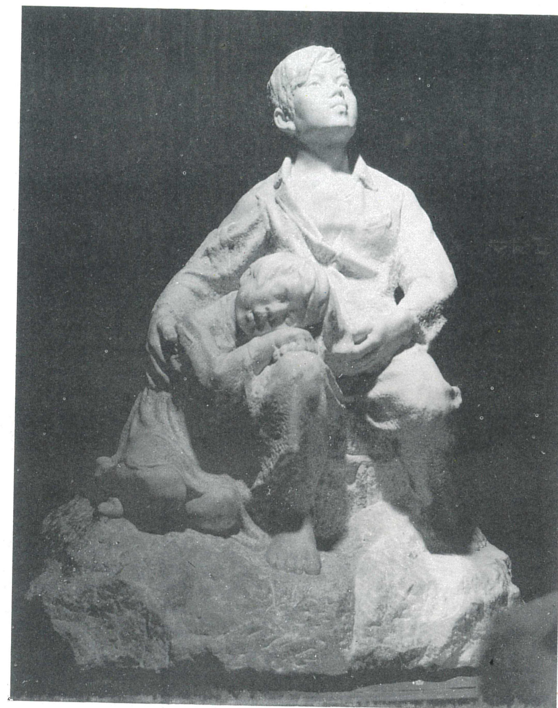
조각 새날은 온다 김락금, 장철 1987년



조각 첫 추위 김정수 1957년



조각 어린 광부 조동순 1997년



조각 북쪽별 김익선 1965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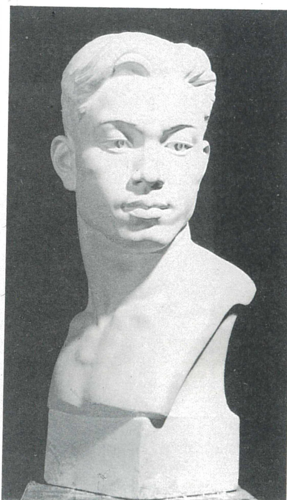
석고교재창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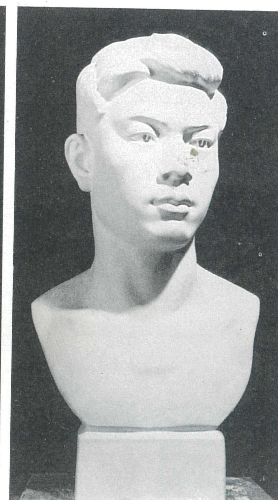
항일유격대 지휘관 김교필



항일유격대 녀대원 송영백



로동청년 송영백



학생청년 송영백



과거의 어린 탄부 김재경

공 예

> 공예는 인간의 창조적지혜와 재치있는 솜씨를 보여주는 세공예술이다.
>
> 김 정 일

공예학부는 조국해방전쟁이 승리한 다음해인 1954년 조각 및 공예 학부의 공예과로부터 발족되였다.

전후 4～5명의 교원들과 10여명의 학생들로 시작한 공예미술교육은 먼저 목칠공예전공수업을 진행하고 련이어 도자공예수업이 진행되였다.

위대한 수령님을 영광의 한자리에 모시고 미술교육이 나아가야 할 강령적인 교시를 받아안던 1954년 8월 대학전람회장에는 우리 나라에서 처음으로 학생들의 목공예와 칠공예작품이 전시되여 공예를 지향하는 새 세대들에게 강한 열망을 안겨주었다.

1958년 9월에 공예학과는 경공업대학으로 이관되였다가 1960년에 미술대학에 산업미술학부가 생기면서 다시 미술대학 산업미술학부 공예과로 넘어왔다.

우리 당의 현명한 예술교육방침에 의하여 1978년말부터 공예학부는 목칠공예강좌, 도자유리공예강좌, 돌 및 금속 공예강좌, 수예강좌를 가진 독자적인 학부로 발전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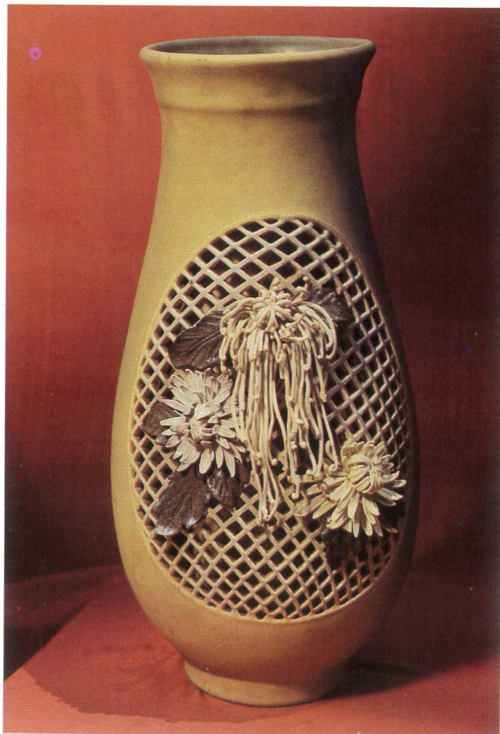
그후 학부는 교육내용을 주체미술발전의 현실적요구에 맞게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여러 학과목들을 새로 개척하여 정연한 공예미술교육체계를 세우고 공예창작가양성의 특성에 맞게 교육강령을 개편완성함으로써 능력있는 공예전문가들을 키워낼수 있게 되였다.

이 기간 교원들은 교육실천과 과학연구 및 창작 과정을 통하여 전공교과서와 참고서들을 집필하였고 수많은 론문을 발표하여 학생들을 위대한 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주체적문예 사상과 리론으로 튼튼히 무장시키는데서 커다란 성과를 거두었으며 부교수, 학사를 비롯한 학위학직소유자들이 교원의 60%를 차지하는 강력한 교육력량으로 자라났다.

지난 40여년간 공예학부졸업생들은 국가미술전람회를 비롯한 여러 전람회들에 우수한 공예작품들을 출품하여 당의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이 과정에 공훈예술가 10여명을 비롯한 많은 명예칭호소유자들을 배출하였다.



금속공예
국화무늬꽃병 김우철 1983년



도자공예　실국화붙임장식꽃병　조경진　1987년



도자공예
모란봉장식꽃병
박룡운, 김광호
1995년



도자공예
학장식꽃병
박룡운
1983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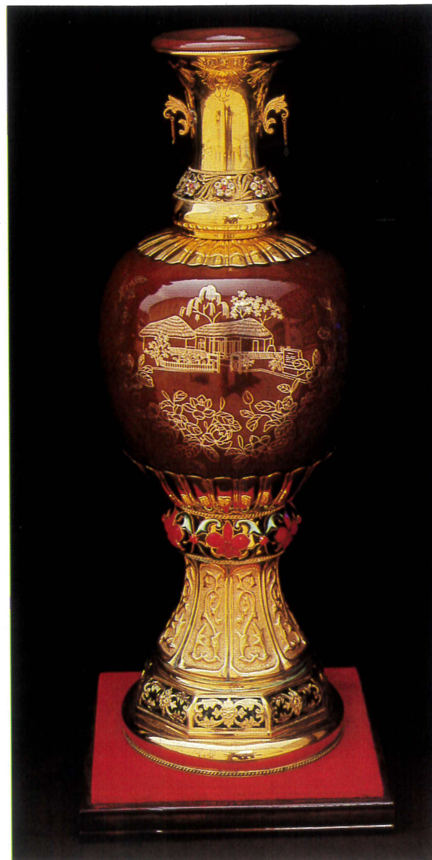
도자공예
포연을 헤치고
박병수, 정형진
1996년



도자공예
원숭이장식술주전자셋트
박현종
1987년



금속공예
불멸의 꽃 김정일화장식꽃병
박수일, 림춘희
1989년



금속공예 만경대고향집장식꽃병 박수일 1988년



금속공예 백두밀영고향집장식꽃병 림춘희 1988년



금속공예
닭형차주전자셋트
신금철
1988년



유리공예
은방울장식꽃병
김일남
1996년



돌공예
3단양념단지
변원호
1986년



도자공예 모이주는 어린이 박병수 1973년



유리공예 과일반 송왈은 1988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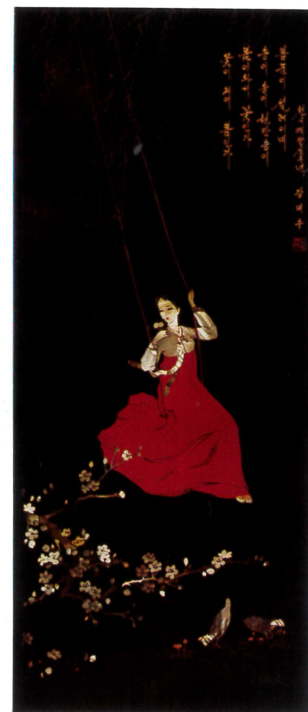


돌공예 목란꽃은실박이돌단지 박수일, 림춘희 1992년



목공예
농장의 저녁길
양형진
1984년

칠공예
단오날
강대수
1989년





유리공예 숭어떼 송왈은 1993년



칠공예 소반 박종선 1959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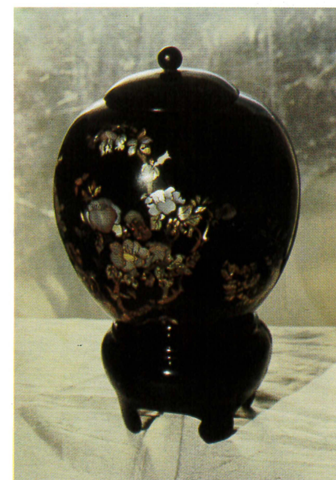
칠공예 모란꽃무늬과자그릇 서금렬 1985년



칠공예 등꽃장식꽃병 리강렬 1987년



칠공예 회령의 백살구 김관보 1985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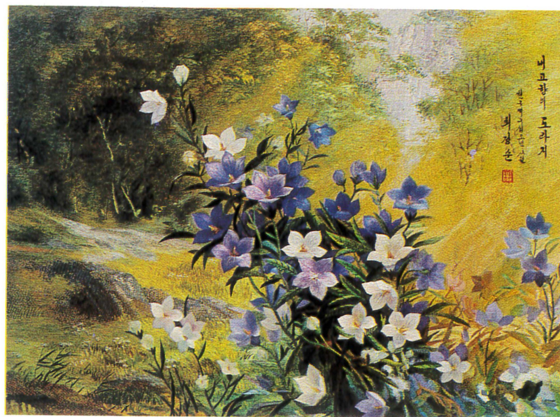
칠공예 보약단지 김찬규 1965년



수예
범
변명옥
1985년



수예 불멸의 글발 김옥희 1992년



수예 내 고향의 도라지 최정순 1996년



수예 해바라기 김옥남 1987년



수예
맨드라미
김옥남
1988년



수예 열중 송경옥 1984년



수예 고향의 하늘가 김정순 1990년



수예 목장의 봄
리정순 1990년

산업미술

산업미술은 사회주의적생활양식에 맞게 주체적립장에서 창조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김 정 일

나라의 경제발전과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에 이바지하는 여러가지 품종의 제품도안들을 창작해내는 도안가양성을 사명으로 하고있는 산업미술학부는 1947년 창립당시 도안강좌로 발족하여 현실발전의 요구에 따라 1961년에 공업미술학과와 상업미술학과, 방직의상미술학과가 나왔고 1980년에 방직미술강좌와 의상미술강좌가 분리되였으며 그후 건축장식미술강좌가 새로 생겨남으로써 학부로 발전하였다.

지난 50년간 산업미술학부는 산업미술을 적극 발전시킬데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경애하는 장군님의 말씀을 교육사업에 철저히 구현해나감으로써 나라의 경제를 발전시키며 인민생활을 높이는데 적극 이바지하는 능력있는 산업미술도안가 1500여명을 졸업시켰다.

이들속에서는 가치있는 산업미술도안들을 훌륭하게 창작실현하여 위대한 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께 기쁨을 드리고 당의 높은 평가를 받은 로력영웅 1명, 인민예술가 2명, 공훈예술가 12명이 배출되는 자랑찬 성과가 이룩되였다.

학부는 현재 부교수 6명, 학사 6명, 공훈예술가 1명을 가진 권위있는 학술집단으로 꾸려져 산업미술가양성을 위한 교수교양과 창작 및 과학연구 사업을 더욱 심화발전시켜나가고있다.



공업미술 김영철 1997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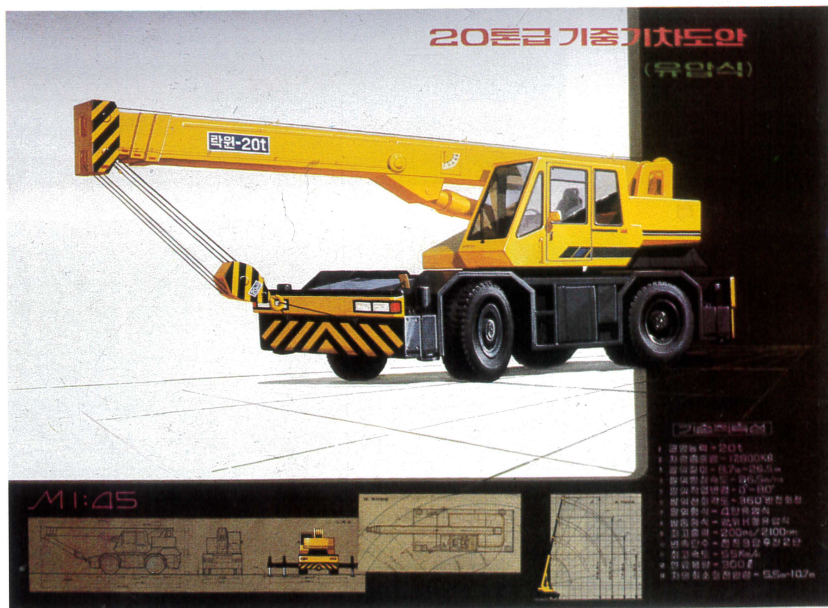
공업미술 배성호 1995년



공업미술 김태식 1997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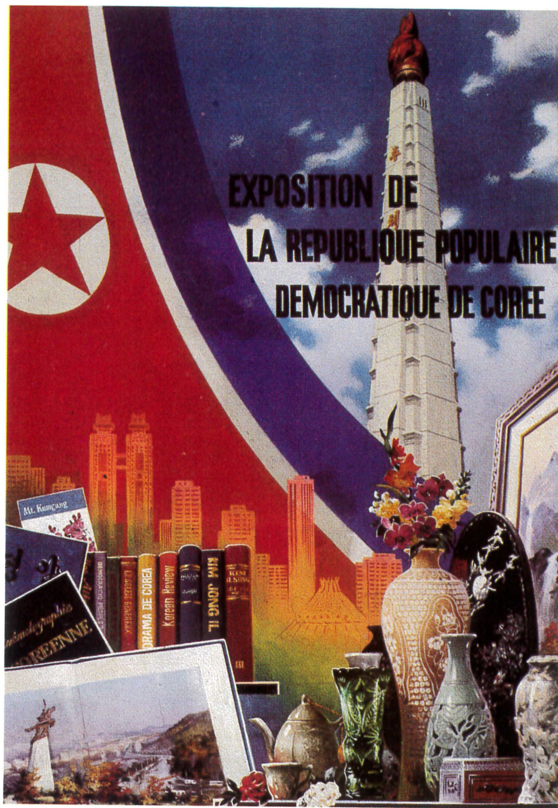
공업미술 김만렬 1997년



공업미술 리명철 1991년



공업미술 리선학 1996년



상업미술
안영관
１９８６년



상업미술
한창혁
１９９７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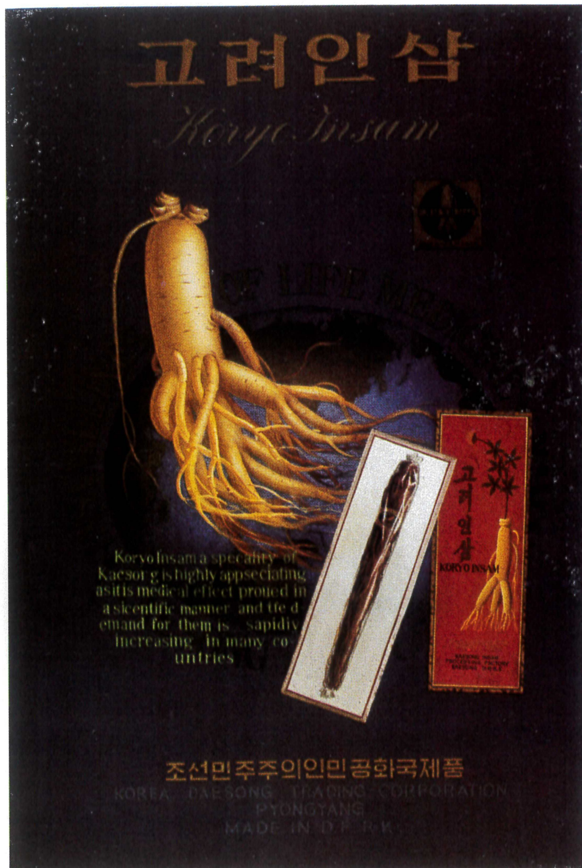
상업미술　최경화　１９９１년



상업미술　김충성　１９９０년



상업미술　심경란　１９９６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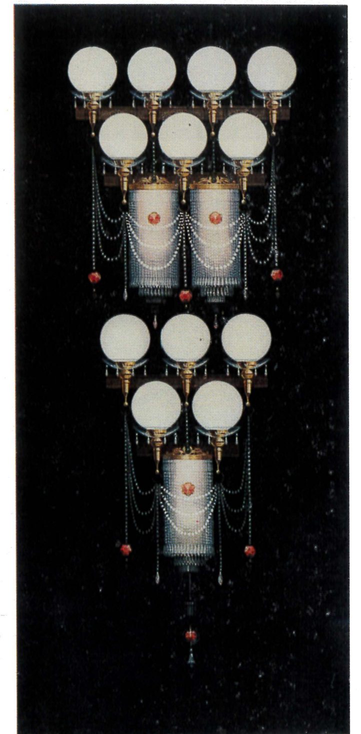
상업미술
박철룡
1979년



장식미술
리 훈
1991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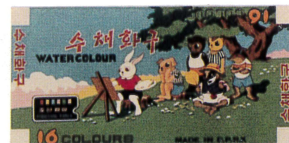
장식미술
구정훈
1991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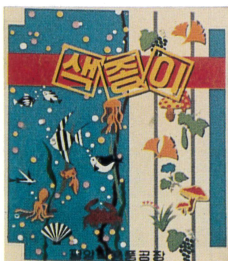
장식미술
정연철
1984년

학용품

포장도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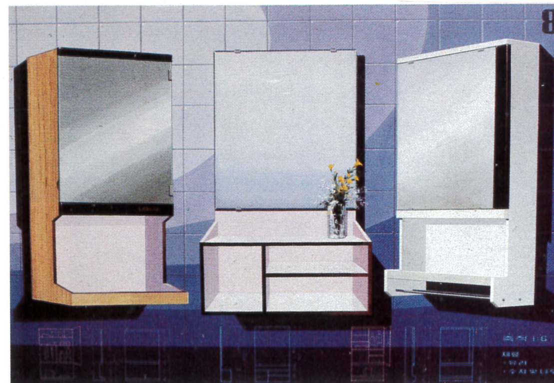








상업미술
계영수
1979년



장식미술 오영남 1994년



의상미술
리유미
1987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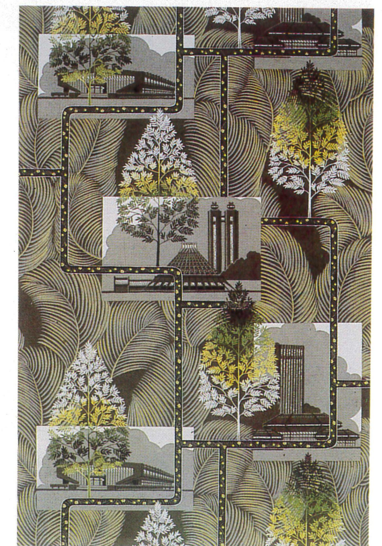
의상미술 장은선 1994년



의상미술
김설미
1995년



방직미술
진필승
1984년



방직미술 김순영 1994년



방직미술
문영혜
1997년



의상미술
박철환
1994년



방직미술
남 위
1988년



의상미술 김정란 1996년



방직미술
리경진
1982년



의상미술 리정조 1994년

기초교육

미술가는 소묘, 채색, 습작 같은 미술실기의 여러가지 공간을 리용하여 예술적기량을 세련시키는데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김 정 일

미술인재양성사업에서 기초교육은 첫공정이며 미술가의 자질을 평가하는 기본척도의 하나이다.

벅찬 현실에서 아무리 예술적충동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것을 화폭에 능란하게 그려낼수 있는 미술가의 재능이 안받침되여있지 못하면 아름답고 숭고한 미술작품을 창작할수 없다.

지난 기간 평양미술대학에서는 미술교육에서 기초교육을 강화하는데 큰 힘을 넣음으로써 기초실력이 튼튼하게 갖추어진 능력있는 미술인재들을 수많이 육성하여 주체미술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



조선화 (습작)
대성산 식물원에서
배 영
1993년

대학에서는 교육내용과 교육강령 작성에서 영생불멸의 주체사상과 그 구현인 우리 당 정책을 깊이있게 연구체득하며 특히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손수 집필하신 불후의 고전적로작 《미술론》을 비롯하여 우리 당의 주체적문예 사상과 리론을 뼈와 살로 되도록 하는데 모를 박음으로써 대학과정에 모든 학생들이 혁명적세계관과 주체적인 미학관을 가지도록 하였으며 《조선미술사》, 《외국미술사》, 《주체미학》, 《원근화법》, 《조형해부학》 등의 미술기초리론교육을 높은 과학적토대우에 올려세워 미술의 일반지식을 튼튼히 가지도록 하였다.

풍부한 사실주의적묘사방법에 기초한 능란한 실기기초능력은 미술가의 생명과 같다.

지난 기간 대학에서는 소묘, 채색 교수의 질을 결정적으로 높이고 습작과 같은 미술실기의 교수공간을 남김없이 리용하여 학생들의 예술적기량을 세련시키는데 모든 심혈을 기울이였다.

회화를 전공하는 학부들에서 입학 첫시기부터 소묘, 채색과 같은 실기기초교육을 집중하여 진행하며 산업미술과 공예를 비롯한 실용미술부문 학부들에서도 전공실기수업에 앞서 일정한 기간 소묘, 채색 교육을 집중적으로 진행하고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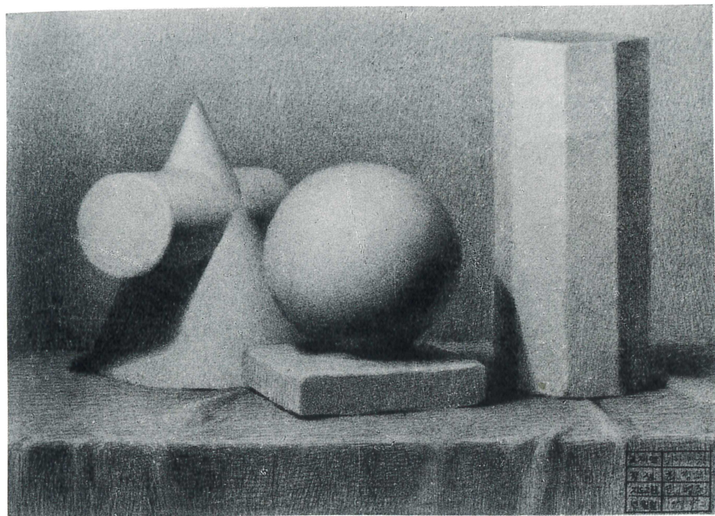
그리하여 오늘 평양미술대학의 교육사업은 당의 의도에 맞게 기초교육을 더욱 튼튼히 주고있다.



조선화 (교재)
인물전신 박광림 1993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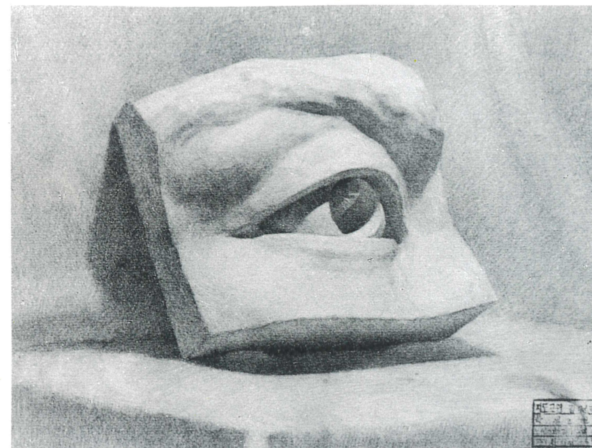
연필소묘 (습작)
얼굴 진휘 1993년



연필소묘 (교재)　기하학체　최정덕　1986년



연필소묘 (교재)　손석고　리성철　1984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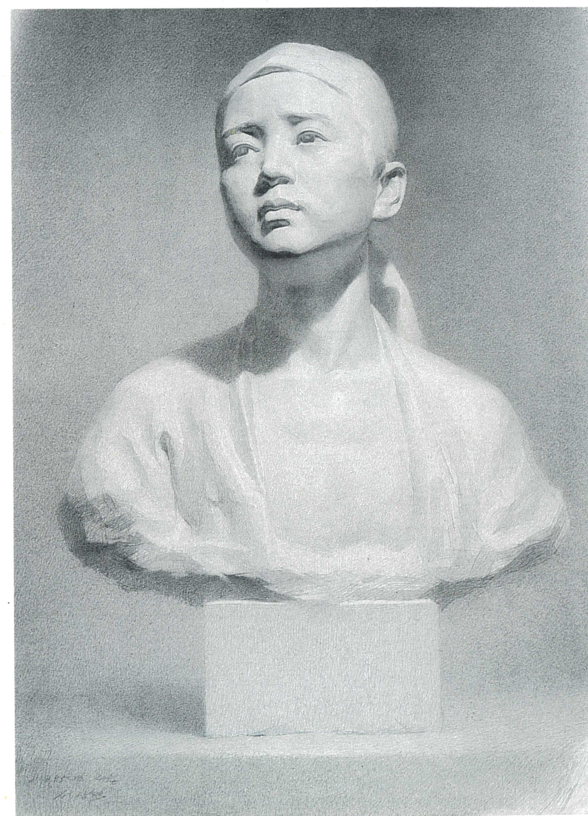
연필소묘 (교재)　눈석고　오현기　1989년



연필소묘 (교재)　로동청년　김광철　1995년



연필소묘 (교재)　꽃파는 처녀　한창혁　1988년



연필소묘 (교재)　과거의 어린 탄부　서삼혁　1995년



연필소묘 (교재) 얼굴 김정봉 1972년



연필속사
얼굴습작
박동철
1996년



연필소묘 (습작) 인물반신 김옥선
1995년



연필소묘 (습작) 얼굴 정연철 1994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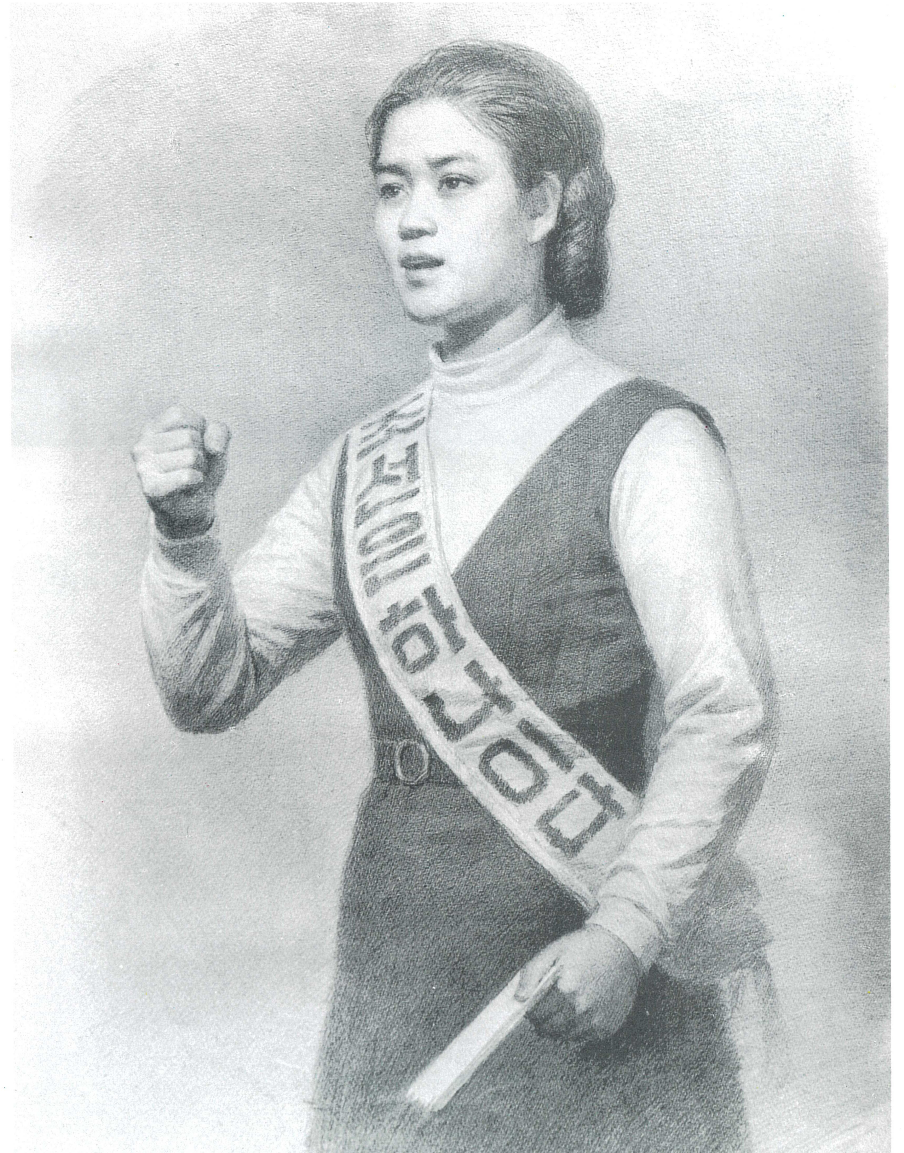
목탄소묘 (교재) 얼굴 량문봉 1975년



연필소묘 (습작) 얼굴 최정욱
1994년



연필소묘 (교재)　인물반신　정현일　1980년



연필소묘 (교재)
인물반신
김형락
1980년



연필소묘 (교재) 인물전신 박대연 1977년



붓소묘 (교재) 인물전신 신봉화 1979년



연필소묘 (교재) 2인군상 계광원 1975년



연필소묘 (교재) 인물전신 림정남 1979년



연필소묘 (교재) 인물전신 최창호 1980년

소묘작품들이 훌륭합니다. 특히 소나무를 그린 연필화가 잘되였습니다. 이런 훌륭한 소질을 가지고있는 학생들을 잘 키워야 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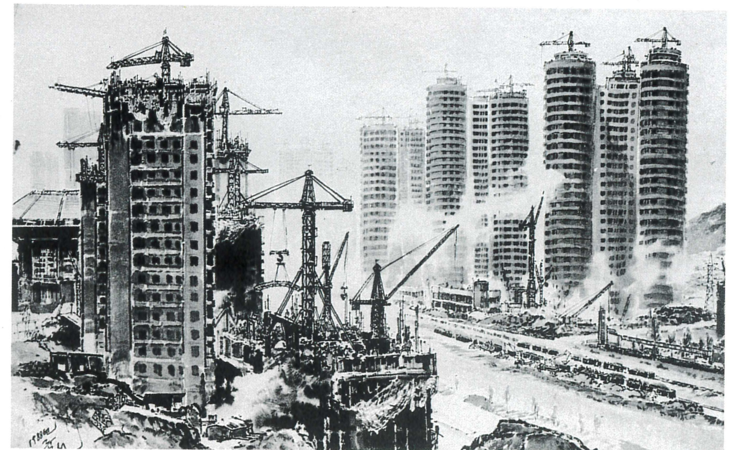
김 일 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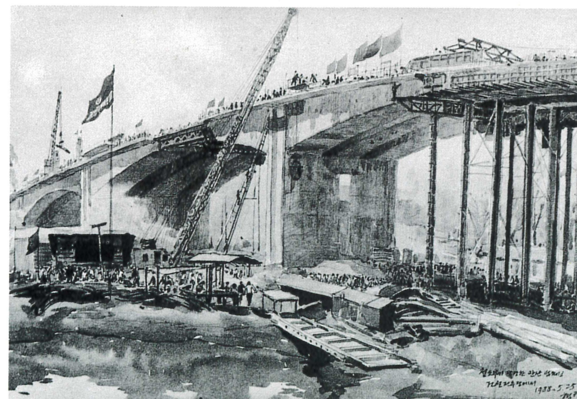
연필속사 소나무 백락용 1954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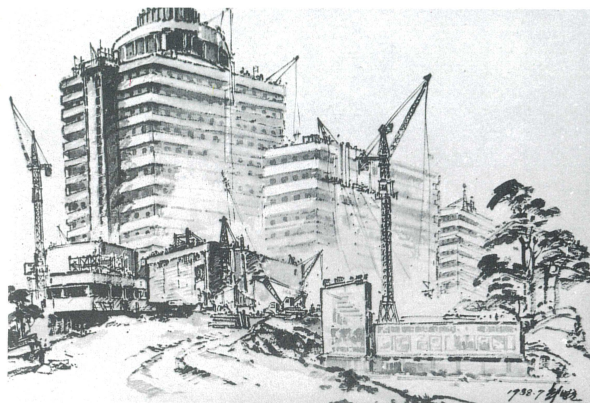
속사
백두밀영에서
김상훈
1991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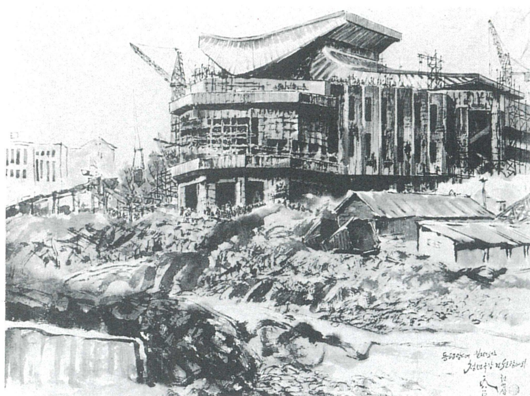
속사
광복거리 건설장에서
리률선
1988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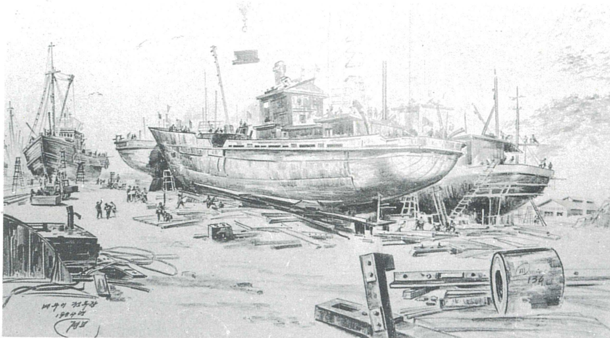
속사
안산립체다리 건설전투장
김형락
1988년



속사 광복거리 건설전투장 최병균 1988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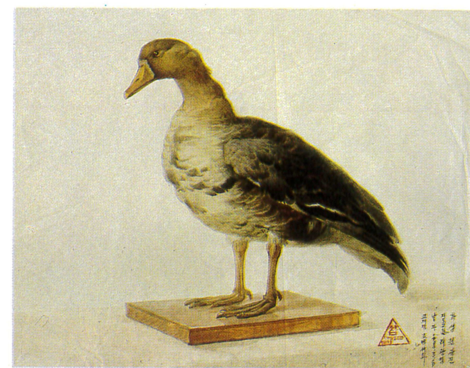
속사 청년극장 건설전투장 전영삼 1988년



속사 어대진조선소에서 한경보 1984년



조선화 (교재) 정물 박복민 1992년



조선화 (교재) 정물 원광진 1996년



조선화 (교재) 정물 김종식 1988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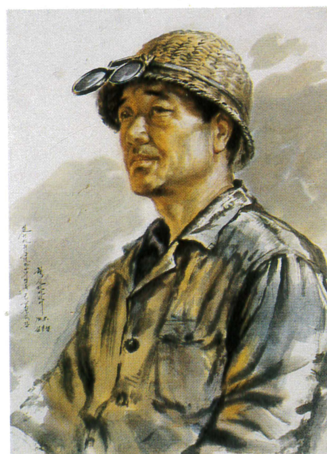
조선화 (교재)
정물
김종혁
1988년



유화 (습작) 초병
홍철웅 1994년



유화 (습작) 성과보고 정문철 1994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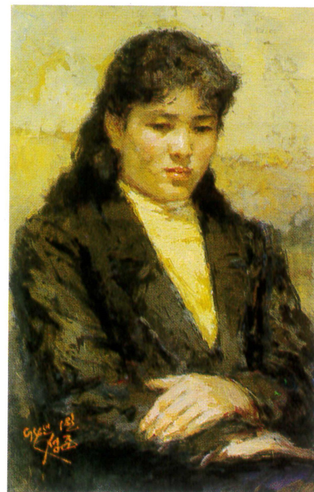
조선화 (습작)
용해공얼굴
김춘섭
1995년



조선화 (습작)
녀성군인얼굴
박동철
1994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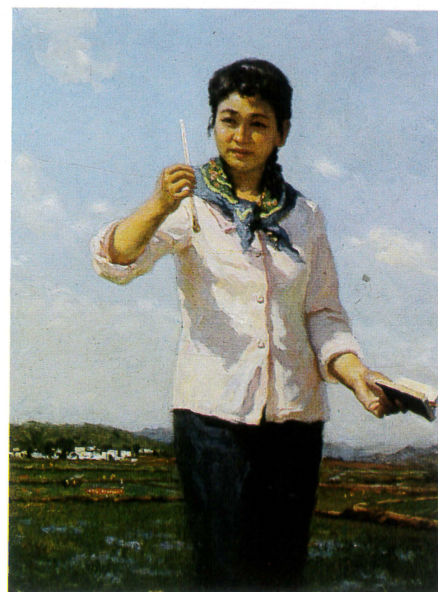
유화 (습작)　도장공　리종효　1995년



팟슈화 (습작)
인물반신　천승택　1994년



조선화 (습작)　인물반신　최광현　1988년



유화 (습작)　인물반신
심철웅　1991년



조선화 (교재)　인물반신　박현철　1994년



조선화 (교재)
인물반신
최윤철
1 9 9 4년



조선화 (교재)　인물반신　김광철　1 9 9 4년



조선화 (교재)　인물반신　강인철　1 9 8 9년



조선화 (습작)
인물반신
박현철
1 9 9 6년



수채화 (교재)　인물반신　진용훈　1 9 9 4년



조선화 (교재)　인물반신　최광현　1 9 8 9년



조선화 (교재) 인물전신
유관식 1989년



조선화 (교재) 인물전신
김기철 1989년



조선화 (교재) 인물전신
한성철 1991년



수채화 (교재) 인물전신
리연성 1989년



조선화 (교재) 인물전신 김규학 1995년



조선화 (교재) 인물전신
박광림 1993년



조선화 (교재) 인물전신
김철수 1995년



조선화 (교재) 인물전신 박현철 1994년



조선화 (교재) 인물전신 김일철 1982년

조선화 (교재)
2인군상
박광림
1994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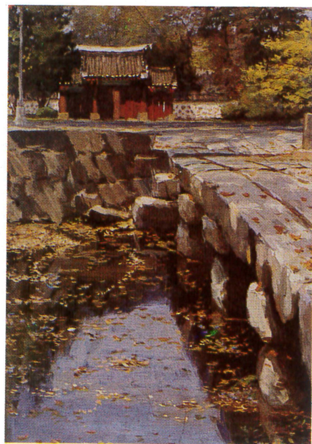
조선화 (습작) 가을 한경보 1996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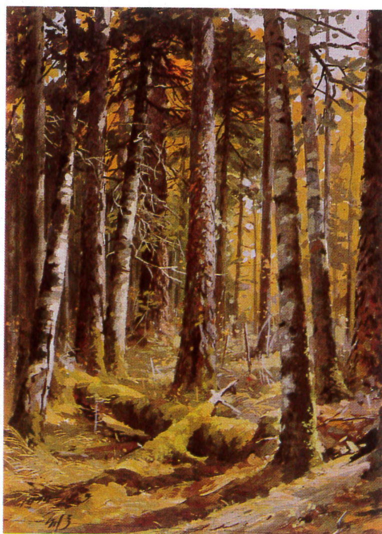
조선화 (습작) 금강산 천녀봉 안창국 1995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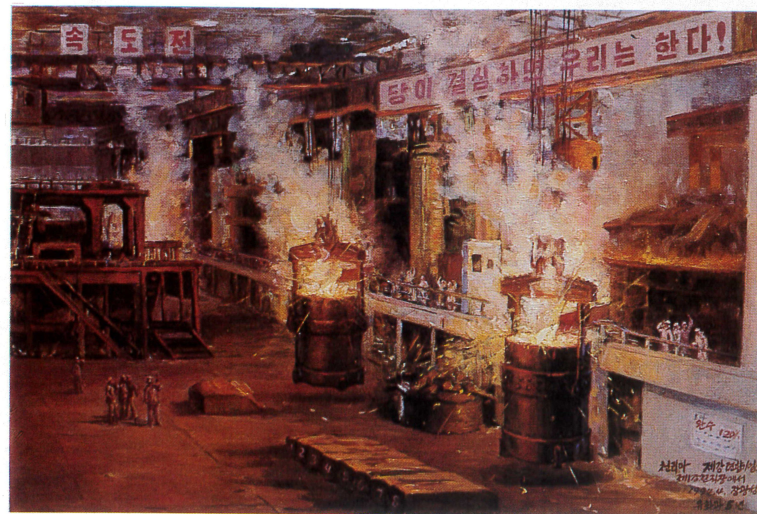
조선화 (습작) 식물원의 가을
박동철 1994년



유화 (습작) 선죽교
김문성 1994년



팟슈화 (습작) 백두밀영에서 장세주 1994년



유화 (습작) 강철직장에서 장광성 1994년

《당이 결심하면 우리는 한다》

우리 인민은 일심단결의 구호밑에 당과 수령의 두리에 철통같이 뭉쳐 《당이 결심하면 우리는 한다》는 드높은 기세로 주체혁명위업의 종국적승리를 향하여 확신성있게 전진하고있다.

김 정 일

언제나 당과 함께 운명을 같이하며 끊임없는 승리의 길을 걸어온 평양미술대학의 50년 력사에는 당의 사랑과 믿음에 보답하기 위한 교원, 학생들의 충성의 발자취가 력력하게 아로새겨져있다.

《당이 결심하면 우리는 한다》, 이것은 평양미술대학 교원, 학생들의 드팀없는 신념이였고 삶의 좌우명이였으며 변함없는 맹세였다.

그러기에 평양미술대학 교원, 학생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해방후 새 조선 건설에로 인민들을 부르시였을 때에는 한결같이 떨쳐나서 부강조국건설과 혁명적이며 인민적인 미술 교육과 창작 사업에 헌신분투하였고 조국해방전쟁의 준엄한 나날에는 서슴없이 전선에 탄원하여 불비 쏟아지는 조국의 고지들에서 당과 수령을 위하여 목숨바쳐 싸웠다.

전후 그 어려운 나날에는 어버이수령님과 한집안식솔이 되여 허리띠를 졸라매고 간고분투하는 인민들과 함께 복구건설장들에 힘차게 달려가 청춘의 슬기와 용맹을 남김없이 떨치였다.

천리마의 속도로 세기를 주름잡으며 힘차게 전진하여온 60년대와 70년대, 80년대를 거쳐 오늘에 이르기까지 평양미술대학 교원, 학생들은 당의 부름을 언제나 높이 받들고 시대의 기념비로 거연하게 솟아 빛을 뿌리는 대기념비창조사업에 모든 지혜와 재능, 정력을 다 바쳤다.

참으로 50년의 평양미술대학 력사는 당의 사상과 숨결로 숨쉬고 맥박쳐온 일심단결, 혼연일체의 승리의 력사였으며 《당이 결심하면 우리는 한다》는 절대성, 무조건성의 오직 하나의 정신으로 일관된 가장 고결하고 아름다운 충성과 위훈의 력사였다.

부록 《당이 결심하면 우리는 한다》는 지난 50년간 당의 부름을 높이 받들고 충성과 효성의 한마음을 다 바쳐온 평양미술대학 교원, 학생들의 헌신적인 투쟁가운데서 그 일부를 추려서 편집하였다.

국장과 국기 도안에 깃든 어버이사랑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장과 국기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해방직후 건당, 건국, 건군 사업을 령도하시는 그 바쁘신 나날에 영광스러운 우리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장과 국기를 제정할데 대한 원대한 구상을 제시하시고 그 도안창작을 평양미술대학에서 맡아하도록 최상의 믿음과 영광을 안겨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후 네차례에 걸쳐 도안창작사업을 료해하시고 창작 방향과 방도를 밝혀주시였으며 도안작품을 세심하게 지도하시여 완성시켜주시였다. 하여 우리 인민은 력사상 처음으로 근로인민의 나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상징하는 훌륭한 국장과 국기를 가질수 있게 되였다.



수채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장과 국기 도안을 지도하여주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함창연, 정룡석

1978년

(104×186㎝)

모든 힘을 전쟁의 승리를 위하여 !

미제가 일으킨 지난 조국해방전쟁은 우리 인민에게 있어서 위대한 수령님께서 안겨주신 자주적인민의 존엄을 지키는가 아니면 또다시 식민지멍에의 쇠사슬을 쓴 노예가 되는가 하는 준엄한 결사전이였다.

조국해방전쟁시기 평양미술대학 교직원, 학생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모든 힘을 전쟁의 승리를 위하여 !》라는 전투적명령을 높이 받들고 앞을 다투어 조선인민군대에 탄원하였으며 자기의 한목숨 다 바쳐 원쑤들과 용감히 싸워 당과 수령, 조국과 인민을 피로써 사수하였다.

한편 후방에 남은 교직원, 학생들은 대학사업을 전시체제로 개편하고 전시환경에 맞게 미술교육사업과 전투적인 미술창작, 직관활동을 적극적으로 벌려 싸우는 인민군대와 인민들을 전쟁승리에로 고무추동하는데 크게 이바지하였다.



1950년 6월 26일 력사적인 방송연설(《모든 힘을 전쟁의 승리를 위하여 !》)을 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조선인민군대에 탄원입대하는 평양미술대학 교직원, 학생들



대학사업을 전시체제로 개편하고 전시환경에 맞게 미술교육사업을 진행하고있는 평양미술대학 교원, 학생들

전후인민경제복구건설의 나날에

전쟁의 포화가 멎은 이 땅에는 재더미만 남았으나 위대한 수령님의 령도밑에 전쟁에서 승리한 우리 인민의 영웅적기상은 전후복구건설의 마치소리로 되여 힘있게 울려퍼졌다.

전후인민경제복구건설의 나날에 평양미술대학 교원, 학생들은 전후인민경제복구건설에 떨쳐나선 우리 인민들의 투쟁에 발맞추어 1954년 8월, 전후 우리 나라에서 처음으로 규모가 크게 8.15해방 9주년기념 평양미술대학 미술작품전람회를 마련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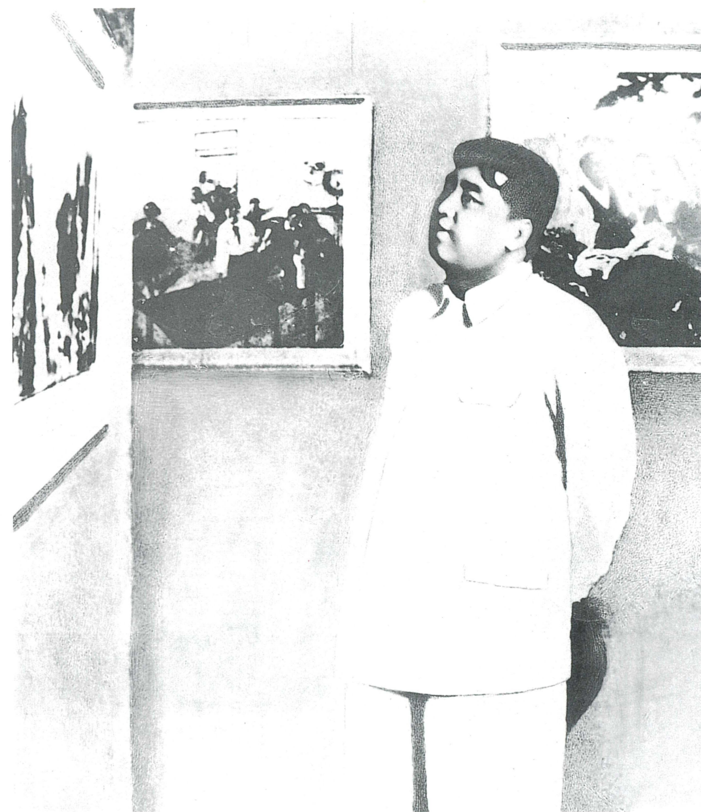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전후인민경제복구발전을 위한 어렵고 복잡한 투쟁을 령도하시는 그 바쁘신 가운데서도 전람회장을 친히 찾으시여 전시된 작품들을 하나하나 세심하게 보아주시고 미술작품들이 전후복구건설과 조국해방전쟁의 주제들을 옳게 선택하였다고 치하하여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대학의 교원, 학생들이 전람회에서 성과를 거둘수 있은것은 미술대학 교원들이 우리 당의 문예정책을 높이 받들고 학생들을 잘 가르친 결과이며 우리 나라 미술교육체계와 방법이 옳게 서고 미술대학에서 주체미술의 견실한 토대가 닦아졌다고 고무격려하여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계속하여 조선사람의 감정과 정서에 맞는 조선화를 더욱 발전시킬데 대하여서와 미술에서 민족적특성을 구현할데 대한 문제, 학생들의 소질을 충분히 발양시켜 우리나라 미술발전에 기여할데 대한 문제 등 미술대학 교육사업에서 반드시 견지하여야 할 강령적 지침으로 되는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그후 평양미술대학에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현지교시를 관철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 주체적인 미술 교육사업과 창작사업에서 커다란 성과를 이룩하였다.

또한 평양미술대학 교직원, 학생들은 전후인민경제복구건설에 떨쳐나선 인민들과 함께 황주와 의주, 순안, 곽산의 국토복구건설장과 미림-력포철도부설공사 그리고 신창탄광에서의 생산로동 등에 참가하여 청춘의 슬기와 용맹을 남김없이 발휘하여 커다란 로력적위훈을 세웠다.



1954년 8월 5일 8.15해방 9돐기념 평양미술대학 미술작품전람회장을 찾으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황주국토복구건설에 동원되여 위대한 수령님을 만나뵈은 평양미술대학 교직원, 학생들 (그림)

당의 령도밑에 이 땅우에 건설된 기념비적창조물은 길이 전하며 영원히

만수대대기념비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탁월한 기념비건립 사상과 리론,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이 땅우에 시대의 기념비로 웅장하게 일떠선 수많은 혁명적기념비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쌓아올리신 불멸의 업적에 대한 전인민적송가이며 전사회적창조물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주체미술건설에서 평양미술대학이 차지하는 위치와 역할을 깊이 헤아리시고 만년대계의 기념비창조사업에 만수대창작사의 전문창작가들과 함께 평양미술대학 교원, 학생들을 불러주시는 크나큰 믿음과 사랑을 베풀어주시였다.



당의 부름을 높이 받들고 평양미술대학 교원, 학생들은 1969년부터 1971년까지 만수대대기념비 창조사업에 참가하는 영광을 지니였다.

기념비창조사업에 참가한 조각학부 교원, 학생들은 낮과 밤이 따로 없는 충성의 창작전투를 벌림으로써 수많은 군상들을 사상예술성이 높게 형상하여 만수대대기념비가 평양의 중심부에 거연히 솟아 우리 인민의 영원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영광찬란한 혁명력사와 불멸의 혁명업적을 전일적인 조형적형상체계속에서 집대성한 주체시대의 력사적창조물로 건립되는데 이바지하였다.





만수대대기념비 창조사업에 참가한 평양미술대학 교원, 학생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세계사적업적을 후손만대에 빛을 뿌릴것이다.

김 정 일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탑

주체조국의 푸른 하늘가에 거연히 솟은 만수대대기념비와 왕재산대기념비, 보천보전투승리기념탑, 천리마동상,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탑, 당창건기념탑 등 기념비들에는 언제나 당의 부름에 충실하여온 평양미술대학 교원, 학생들의 창조적 지혜와 재능이 충성의 땀방울로 되여 깃들어있다.

우리 시대의 기념비들은 우리 시대 인민뿐아니라 후대들에게 끝없는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 혁명적신념을 안겨주며 기적과 혁신에로 고무추동하는 만년대계의 문화적재보로 길이 빛날것이다.







1992년 5월 18일부터 1993년 7월 27일까지 평양미술대학 교원들과 학생 60여명은 전승 40돐을 맞이하여 건립되는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탑 창조사업에 참가하였다.

조각학부 교원들과 학생들은 성스러운 기념비창조사업에 참가한 자랑과 긍지를 안고 낮과 밤을 불꽃튀는 창작전투의 날들로 이어감으로써 기본주제 《승리》상과 《군기수》문주조각 그리고 부주제군상들인《대전해방전투》, 《적후인민유격대원들의 투쟁》을 비롯한 기념비의 여러 군상들의 형상창조를 담당수행하였다. 특히 졸업반학생들은 부주제군상 《1211고지방위자들》에서 자기들의 졸업작품종자를 설정하고 지도교원과 창작가들의 적극적인 지도방조속에서 형상의 꽃을 피워나감으로써 졸업작품을 기념비에 아로새겨넣은 성과를 거두었다.



천리마동상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높이 받들고 1958년 9월부터 1961년 4월 15일까지 평양미술대학 조각학부 교원들과 학생들은 천리마동상 창조사업에 참가하여 기념비를 짧은 기간에 훌륭하게 완성하는데 크게 이바지하였다.



천리마동상 창작건립에 참가한 평양미술대학 교원, 학생들

보천보전투승리기념탑



1965년부터 1967년 5월말까지 210일간에 걸쳐 평양미술대학 교원들과 학생들은 당의 부름을 높이 받들고 력사적인 보천보전투승리 30돐에 즈음하여 건립되는 《보천보전투승리기념탑》 창조사업에 참가하였다.

참가자들은 우리 나라에서 처음으로 일떠서는 혁명전통기념비창조사업에 참가한 영광과 긍지를 간직하고 부주제군상들인 《진격》과 《격멸》 부분을 담당하여 창조적 지혜와 재능을 다 바침으로써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직령도하신 항일무장투쟁의 영광찬란한 로정과 불멸의 업적을 영웅서사시적으로 형상한 기념비건립사업에 적극 기여하였다.





보천보전투승리기념탑 창작건립에 참가한 평양미술대학 교원, 학생들

왕재산대기념비





１９７４년 ４월부터 그해 １２월까지 평양미술대학 조각학부 교원, 학생 ７０여명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직접적인 령도에 의하여 건립되는 력사적인 왕재산대기념비 건립사업에 참가하는 영광을 지니였다.

그들은 부주제부각상들인 《전투편》과 《원호편》창조사업을 담당하여 왕재산대기념비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직전개하신 항일무장투쟁을 형상한 우리 나라에서의 첫 봉화탑으로서의 거창한 혁명적내용과 조형적형식, 형상의 완벽성을 갖춘 우리 시대 혁명기념비의 본보기걸작으로 창조되도록 하는데 이바지하였다.

혁명사적미술창조

위대한 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 그리고 존경하는 김정숙어머님의 혁명 력사와 투쟁업적이 깃들어있는 혁명전적지와 혁명사적지, 당의 유일사상교양의 거점인 혁명박물관과 《김일성동지혁명사적관》, 《김일성동지혁명사상연구실》 등을 정중히 꾸리고 잘 관리하며 철저히 보위하는것은 온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위대한 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께 끝없이 충직한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 키우는데서 커다란 의의를 가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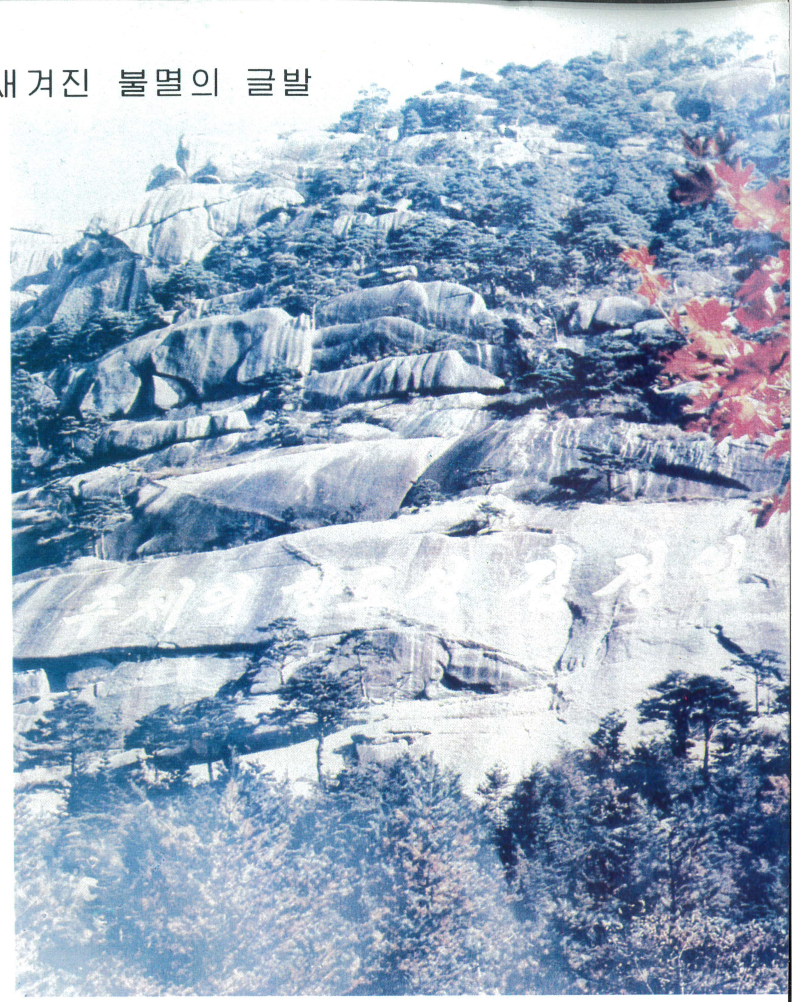
지난 50년간 평양미술대학 교원, 학생들은 전국각지의 혁명 전적지와 사적지, 명승지들에 사적비, 교시 및 말씀비, 천연바위에 명제비 등을 모시기위한 서예작품원본보장사업과 혁명 박물관, 사적관, 연구실 등의 진렬장식 도안과 회화, 조각, 공예, 서예 작품들을 수많이 창작실현함으로써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위업 수행에 커다란 기여를 하였다.

조선혁명박물관

만경대갈림길사적비

금강산 자연바위에 새겨진 불멸의 글발







만경대혁명사적관



항일혁명투사
마동희동지의 반신상

건축장식미술창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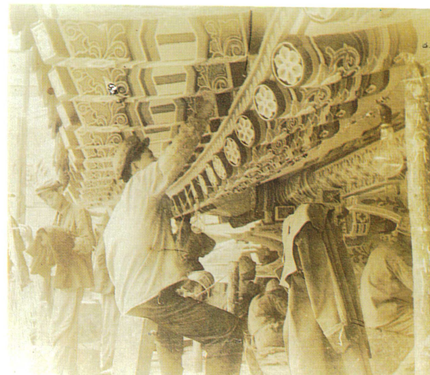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원대한 건설 구상과 방침, 정력적인 령도에 의하여 우후죽순처럼 일떠선 기념비적건축물들은 조국의 면모를 일신시키고 주체조선의 위용을 온 누리에 과시하고있다. 이 수많은 기념비적건축물들마다에는 미술가들의 창조적 지혜와 재능이 깃든 대형벽화들과 내외부장식조각과 장식도안, 극장들의 면막과 건축물내부의 여러 그림과 조각품들이 당의 의도에 맞게 최상의 수준에서 훌륭히 형상창조되여 기념비적건축물들과 더불어 후세에 길이 전할 우리 인민의 자랑찬 물질, 문화적 재부로 로동당시대를 빛내이고있다.

그가운데서 금수산기념궁전과 국제친선전람관, 인민대학습당, 만수대예술극장, 인민문화궁전, 평양대극장, 4. 25문화회관, 평양지하철도, 동명왕릉, 대성산 광법사와 남문, 조선중앙력사박물관 등 기념비적건축물들의 벽화와 단청을 비롯한 건축장식들에는 언제나 수령님과 당의 령도에 충실한 평양미술대학 교원, 학생들의 창조적 지혜와 재능이 깃들어있다.

국제친선전람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지시에 따라 평양미술대학 교원, 학생 350여명은 50여일간에 걸쳐 묘향산에 건설되는 국제친선전람관 단청미술작업에 참가하여 위대한 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에 대한 높은 충성심을 발휘함으로써 아름찬 작업대상을 제 기일에 끝내는 성과를 거두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1978년 8월 26일 국제친선전람관을 돌아보시면서 평양미술대학 교원, 학생들이 거둔 성과를 놓고 못내 대견해하시면서 분에 넘치게도 대학 책임일군과 일부 학생들을 건설자들속에 참가시켜 영광의 기념촬영까지 하여주시는 최상의 영광을 베풀어주시였다. 또한 10여명의 교원, 학생들에게는 화선입당의 영예를 지니도록 해주시였고 단청작업에 참가한 전체 성원들에게 사랑의 선물을 보내주시였다.







국제친선전람관 단청장식을 하고있는 평양미술대학 학생들

인민대학습당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경애하는 장군님의 말씀에 따라 평양미술대학 교원들과 학생 480여명은 1980년 8월 10일부터 9월 25일까지 혁명의 수도 평양의 한복판에 웅장하게 일떠선 인민대학습당 단청미술작업에 동원되여 단청공사를 성과적으로 해제끼는 혁신을 창조하였다.





인민대학습당 단청장식을 하고있는 평양미술대학 학생들

동명왕릉



위대한 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부르심을 높이 받들고 평양미술대학 교원, 학생들은 고구려의 시조 동명왕의 릉개건확장공사에 참가하여 제당벽화 25점과 릉문, 제당, 정릉사 단청장식을 성과적으로 진행한것을 비롯하여 대성산의 남문, 광법사, 장수봉정각과 묘향산 보현사의 단청장식 등 수많은 력사유적들에 대한 장식미술창조에 참가하여 민족의 력사적재보창조에 커다란 공헌을 하였다.



동명왕릉 제당벽화중에서
《고주몽 고구려건국을 선포하다》



동명왕릉의 미술창조사업에 참가한 평양미술대학 교원, 학생들




만수대예술극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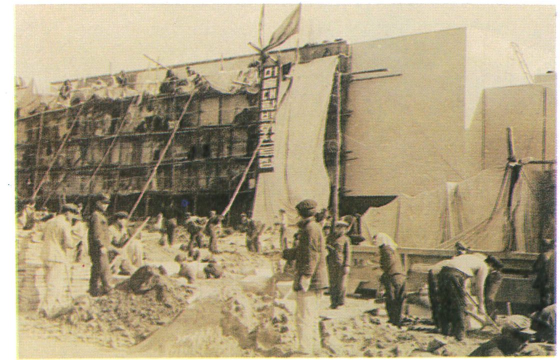

4.25문화회관


인민문화궁전


평양대극장









기념비적건축물의 대형 벽화제작에 참가한 평양미술대학 교원, 학생들

기념비적벽화창조

경애하는 장군님의 말씀을 높이 받들고 평양미술대학 교원, 학생들은 로동당시대의 대기념비적건축물로 웅장화려하게 일떠선 만수대예술극장과 인민문화궁전, 4.25문화회관과 평양대극장, 평양지하철도를 비롯하여 여러 대상들의 벽화창작에 동원되여 사상예술성이 높은 만년대계의 기념비적 벽화작품들로 형상하는데 커다란 공헌을 하였다.

평양미술대학 교원, 학생들은 만수대예술극장의 벽화《만경대의 봄》, 《태양을 따라》, 《눈이 내린다》, 《조국의 진달래》, 《사과풍년》, 《키춤》, 《손북춤》, 《해당화 핀 바다가》, 《금강의 목란》, 《삼지연의 진달래》와 4.25문화회관 벽화《초병은 수령님께 새해의 첫 아침인사 드립니다》그리고 인민문화궁전의 벽화《사회주의 내 나라》, 《은혜로운 해빛아래》, 《강철전사의 영예》, 《만풍년의 기쁨》, 평양대극장 벽화《꽃파는 처녀》, 《피바다》, 평양지하철도 개선역 벽화《민족의 태양 **김일성**장군님의 조국개선을 환영하는 인민들》과《새 조국 건설에 일떠선 인민들》, 조선예술영화촬영소의 벽화《주체적영화예술이 걸어온 길》, 《혁명적영화예술의 전통》의 창작을 통하여 당의 방침 관철에서 절대성, 무조건성의 정신을 높이 발휘하였다.





행사미술보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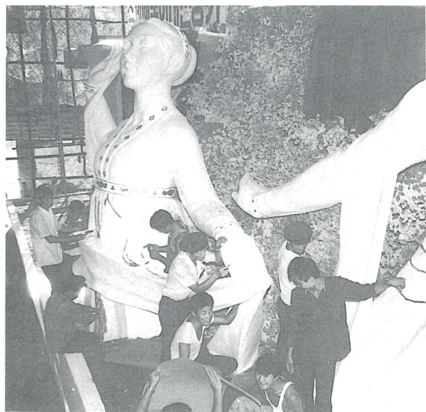


집단체조배경대미술창조

지난 50년간 평양미술대학 교원, 학생들은 당과 국가의 중요정치행사들의 행사미술작품들을 사상예술적으로 우수하게 창작함으로써 행사를 성과적으로 보장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특히 1978년 9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30돐기념 군중시위의 가장물 《진격의 나팔수》(크기 18m×5.5m×11m)와 1980년 10월 조선로동당창건 35돐과 당 제6차대회경축 군중시위의 주체예술가장물 《향도의 해빛아래》(크기 20m×5.5m×11m), 1995년 10월 조선로동당창건 50돐경축 군중시위가장물 《내 나라 제일로 좋아》의 도안과 제작을 맡아 훌륭하게 완성함으로써 행사들을 성과적으로 보장하였으며 위대한 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으로부터 가장물의 내용과 형식이 아주 좋다는 높은 평가를 받았다.

평양미술대학 교원, 학생들은 위대한 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부르심을 높이 받들고 현지의 배경대미술가들과 함께 집단체조들인 《천리마조선》(1964년), 《혁명의 시대》(1965년), 《로동당의 기치따라》(1972년), 《조선의 노래》(1977년), 《주체의 조선》(1978년), 《당의 기치따라》(1980년) 등 수많은 집단체조의 배경대미술작품 창작과 실현에 참가하여 높은 충성심과 창조적 지혜와 재능을 다함으로써 집단체조행사를 성과적으로 보장하는데 기여하였다.



군중시위가장물 도안과 제작에 참가한 평양미술대학 교원, 학생들


집단체조배경대미술 창작과 실현에 참가한 평양미술대학 교원, 학생들



영화 및 무대 미술창조

영화와 가극, 연극 혁명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르던 1970년대에 평양미술대학 교원, 학생들은 당의 부름을 높이 받들고 들끓는 창조현장에서 충성심을 높이 발휘하였다.

특히 회화학부 영화 및 무대 미술학과의 교원들과 학생들은 현지 영화 및 무대 미술가들과 함께 혁명영화들인 《첫 무장대오에서 있은 이야기》, 《백두산》, 《조선의 별》, 《안중근 이등박문을 쏘다》, 음악무용이야기 《락원의 노래》, 가극 《연풍호》, 혁명연극들인 《성황당》, 《딸에게서 온 편지》 등 수많은 영화와 연극, 가극의 무대미술원화와 장치미술 작품들을 사상예술적으로 우수하게 창작하고 제작실현함으로써 영화와 가극, 연극 혁명에 힘있게 기여하였다.


영화 및 무대 미술창조사업에 참가한
평양미술대학 교원, 학생들



국제행사보장

평양미술대학 교원, 학생들은 수많은 국제미술행사와 국제행사 미술보장사업에도 참가하여 자기들의 재능을 남김없이 보여주고 국제적련대성을 강화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1989년 제13차 세계청년학생축전의 개폐막행사도안 170여점과 축전선전화 창작, 《조선청년들의 기상》, 《조선은 하나이다》 미술전람회 작품창작을 성과적으로 보장한것을 비롯하여 우리 나라에서 년례적인 국제행사로 진행하는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 선전화와 여러가지 축전행사도안미술창작, 여러 국제미술전람회와 미술행사들에 참가하였다.




국제미술행사들에 참가한
평양미술대학 교원, 학생들

영원히 당을 따라 한길을 가리라!

위대한 수령님의 자애로운 품속에서 창립의 첫걸음을 떼고 경애하는 장군님의 세련된 령도밑에 영광에 찬 길을 걸어온 평양미술대학의 빛나는 50년, 이 기간에 실천투쟁을 통하여 대학의 교직원, 학생들은 경애하는 장군님은 조국의 운명이시고 우리 민족의 태양이시라는것을 신념으로 체득하게 되였고 위대한 장군님만 계시면 그 어떤 곤난도 다 이겨내고 승리한다는 필승의 신념을 간직하게 되였으며 장군님을 결사옹위하는것을 삶의 첫째가는 요구로 삼고 투쟁해나가게 되였다.

평양미술대학 교직원, 학생들은 지난날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위대한 수령님을 우리 민족의 영원한 수령으로 높이 모시고 경애하는 장군님을 하늘처럼 믿고 따르며 세상이 열백번 변한다 해도 추호의 동요없이 오직 장군님과 끝까지 운명을 같이할 불타는 결의에 충만되여있다.

우리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경애하는 장군님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미술론》을 비롯한 로작과 말씀들을 깊이 연구체득하여 그를 미술교육사업에 철저히 구현함으로써 미술교육사업을 명실공히 당의 사상과 숨결로 고동치는 참다운 **김일성, 김정일**주의 미술교육사업으로 되도록 하며 사상적내용에 있어서 수령결사옹위정신과 《고난의 행군》정신, 붉은기사상으로 관통되고 예술적형상수준에 있어서 완벽한 세계적인 명화들을 창작해낼수 있는 재능있는 미술가들을 더 많이 키워낼것이다.

하여 50년의 미술교육력사에서 당이 이룩한 고귀한 업적을 영원히 고수하고 빛내여나가며 시대와 혁명 앞에 지닌 자기의 숭고한 의무를 다해나갈것이다.



주체미술교육의 빛나는 50년

(평양미술대학창립 50돐기념 화첩)

편찬성원 : 부교수, 학사 렴병옥, 부교수, 학사, 공훈예술가 김삼곤,
학사 한경보, 학사 전관종, 정영금

편 집 : 김순기, 림인걸 사진 : 김성광, 강민

글 : 학사 전관종 장정 : 오광섭, 강철영 교정 : 김인숙, 한금옥

냰곳 : 예술교육출판사

찍은곳 : 민주조선사 인쇄공장

인쇄 1997년 8월 5일

발행 1997년 8월 25일

예- 97-1[illegible]

Seoul